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 체 사 상 으 로
튼 튼 히 무 장 하 자 !

로동신문

조 선 로 동 당 중 앙 위 원 회 기 관 지

제121호 【루계 제23438호】 주체100(2011)년 5월 1일 (일요일)

전당, 전군, 전민이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선군혁명
령도를 높이 받들어나가자!

사 설

선군조선근로자들의 영웅적투쟁력사와 전통을 끝없이 빛내여나가자

전당, 전군, 전민이 강성대국의 대문을 향하여 총공격전을 벌려나가고있는 력사적인 시기에 우리는 전세계근로자들의 국제적명절인 5.1절을 뜻깊게 기념하고있다.

5.1절은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해 헌신적으로 투쟁하는 우리의 로동자, 농민, 지식인을 비롯한 전체 근로자들의 전투적위력을 과시하고 자주적인 삶을 위하여 투쟁하는 전세계근로자들과의 련대성을 강화하는 뜻깊은 계기로 된다. 위대한 김일성조선의 100년사를 대고조의 자랑찬 승리로 장식하기 위한 장엄한 투쟁속에서 맞는것으로 하여 올해의 5.1절은 우리 근로자들에게 크나큰 민족적긍지와 자부심, 비상한 애국적열정과 전투적사기를 북돋아주는 혁명적명절로 되고있다.

지금 우리의 전체 근로자들은 위대한 당의 령도따라 영웅적투쟁력사와 전통을 빛내이며 인민생활향상과 강성대국건설에서 결정적전환을 안아올 드높은 결의에 충만되여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모든 근로자들이 사회주의건설의 중요한 초소들을 지켜 로력적위훈을 세우도록 하여야 합니다.》

위대한 수령, 위대한 당의 령도밑에 우리 근로자들은 참으로 긍지높은 력사를 수놓아왔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일찍부터 로동자, 농민, 지식인을 비롯한 근로하는 인민에 대한 주체적인 관점을 세우시고 그들을 불러일으켜 혁명과 건설을 전진시켜오시였다. 마치와 낫과 붓이 새겨진 당마크에는 로동자, 농민, 지식인들을 혁명의 주인으로 내세우고 광범한 대중을 이끌어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해나가려는 우리 당의 드팀없는 의지가 깃들어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우리 로동계급을 굳게 믿고 전후의 천리마대고조도 일으키시였고 전체 근로자들의 애국적열의를 분발시켜 짧은 력사적기간에 자주, 자립, 자위의 사회주의강국을 일떠세우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는 우리의 모든 근로자들을 열렬한 애국자로, 영웅적위훈의 창조자로 키워주시는 위대한 스승이시며 은인이시다. 우리 근로자들에 대한 위대한 장군님의 크나큰 믿음과 사랑은 공장과 농촌, 과학연구기관들로 끊임없이 이어가신 현지지도강행군길에도 어려있고 강성대국건설의 전초병, 바다의 정복자, 견결한 투사라는 값높은 평가에도 뜨겁게 새겨져있다. 로동계급을 위하여 성대한 연회도 마련해주시고 평범한 농업근로자들을 수도의 화려한 극장무대에 내세워주신분이 위대한 장군님이시며 CNC개발자들에게 높은 국가수훈을 안겨주도록 하신분이 우리 장군님이시다.

우리의 로동자, 농민, 지식인들은 위대한 수령, 위대한 령도자를 모시여 당의 위업을 충직하게 받드는 참다운 사회주의근로자로 성장하고 부강조국건설에서 세기적인 변혁을 이룩해올수 있었다. 우리 혁명의 전취물들마다에는 내 나라, 내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하여 무한한 헌신성과 대중적영웅주의를 발휘하여온 우리의 전체 근로자들의 고귀한 피와 땀이 깃들어있다. 혁명적대고조의 불길속에 주체사상의 대승리가 이룩되고 최첨단돌파의 기적이 창조되였으며 어버이수령님의 한평생의 념원이 실현되는 자랑찬 현실이 펼쳐지게 된것은 우리 근로자들을 정신력의 강자, 창조의 영웅으로 키워주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의 고귀한 결실이다.

당과 수령의 령도밑에 세기를 주름잡으며 영웅적투쟁력사를 창조해온것은 우리 근로자들의 크나큰 긍지이며 자부이다.

오늘 우리는 중대한 력사적시기에 살며 투쟁하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 100돐까지는 이제 한해가 남았다. 우리는 2012년에 강성대국의 대문을 기어이 열어제껴야 하며 그러자면 올해의 인민생활향상대진군에서 빛나는 승리를 이룩해야 한다. 지금이야말로 우리 근로자들이 비상한 각오와 필승의 신념을 지니고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총공격전을 더욱 드세차게, 더욱 과감하게 벌려나가야 할 때이다.

전체 근로자들은 위대한 당의 령도따라 영웅적투쟁력사와 전통을 빛내이며 선군조선의 비약의 기상을 높이 떨쳐나가야 한다.

자기 수령, 자기 령도자를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충직하게 받들어나가는것은 우리 근로자들의 숭고한 혁명적풍모이다.

우리의 로동자, 농민, 지식인을 비롯한 근로자들은 당과 수령만을 굳게 믿고 혁명의 년대기마다 고결한 충정의 력사를 수놓아왔다. 우리 근로자들의 당과 수령에 대한 신뢰는 력사적투쟁속에서 다져지고 그 어떤 시련속에서도 추호의 흔들림없는 절대적인것이다.

전체 근로자들은 위대한 수령, 위대한 령도자를 모시여 세기를 이어 가장 값높고 보람찬 삶을 누려가는 크나큰 민족적긍지와 영광을 가슴깊이 간직하여야 한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후손이라는 사명감을 한시도 잊지 말고 수령님의 한평생의 념원을 실현하기 위한 오늘의 대고조진군을 무한한 충정으로 빛내여나가야 한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계시여 우리의 강성대국건설위업은 반드시 승리한다는 확고한 신념을 지니고 일편단심 장군님의 령도를 충직하게 받들어나가야 한다. 수령결사옹위의 기치높이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를 정치사상적으로, 목숨으로 견결히 옹위하여야 한다.

조국과 혁명, 시대와 력사의 부름에 뜨거운 애국의 심장으로 화답해나서는것은 우리 근로자들의 고귀한 투쟁전통이다.

우리의 부강조국건설력사에는 로동자, 농민, 지식인들의 열렬한 애국심과 무한한 헌신성이 뚜렷이 아로새겨져있다. 우리의 근로자들은 해방후 힘있는 사람은 힘으로, 지식있는 사람은 지식으로, 돈있는 사람은 돈으로라는 위대한 수령님의 애국의 호소를 받들고 한사람같이 새 조국건설에 떨쳐나섰으며 전후 재더미우에서 맨손으로 자동차와 뜨락또르를 만들어내며 천리마대고조를 일으켰다. 애국으로 심장이 불타는 근로자들의 대부대가 있어 우리 조국이 세기적인 변혁을 일으키며 끊임없이 비약해올수 있었다.

우리의 강성대국건설위업은 전인민적인 애국위업이다. 전체 근로자들은 우리의 사랑하는 사회주의조국을 하루빨리 강성대국으로 세계에 높이 떨칠 불타는 애국심을 지니고 분발하고 또 분발하여야 한다. 자기 부문, 자기 초소를 전선으로 여기고 일터마다에서 애국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일으켜나가는데 강성대국건설을 앞당기는 길이 있다. 경공업부문의 로동계급은 인민생활향상의 주공전선을 지켜선 책임감을 깊이 자각하고 인민소비품생산을 대대적으로 늘여야 한다. 농업근로자들은 당의 농업혁명방침을 생명선으로 틀어쥐고 올해에 농업생산에서 결정적전환을 이룩하기 위하여 애국헌신의 구슬땀을 아낌없이 바쳐야 한다. 전력, 석탄, 금속공업과 철도운수부문 로동계급을 비롯한 전체 로동계급은 생산잠재력을 남김없이 발양하여 최고생산년도수준을 돌파하기 위한 투쟁을 더욱 과감히 벌려나가야 한다. 누구나 우리의 힘과 기술, 우리의 자원으로 강성대국을 건설한다는 확고한 관점을 지니고 있는 예비와 가능성을 최대로 동원하며 증산과 절약투쟁을 강화하여야 한다.

혁명적군인정신은 우리 근로자들이 영웅적투쟁력사와 전통을 끝없이 빛내여나갈수 있게 하는 힘있는 추동력이다.

오늘의 대고조진군에서 높이 발휘되는 무비의 영웅성과 불가능을 모르는 창조본때의 밑바탕에는 혁명적군인정신이 놓여있다. 주체철생산체계의 확립과 대계도의 기적도, 흥남땅에서 창조되는 새로운 천리마속도, 조선의 속도도 혁명적군인정신이 안아온것이다.

전체 근로자들은 혁명적군인정신만 있으면 이 세상에 뚫지 못할 난관, 점령 못할 요새가 없다는 투철한 신념을 지니고 군인정신, 군인기질, 군인본때로 억세게 싸워나가야 한다. 희천발전소의 군인건설자들처럼 위대한 장군님께 다진 맹세를 끝까지 지키는 결사의 정신력이 대고조격전장 그 어디에서나 세차게 나래치게 하여야 한다.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부닥치는 애로와 난관을 맞받아 뚫고나가며 집단의 단합된 힘으로 대고조진군속도를 계속 높여나가야 한다. 조선은 결심하면 한다는 강한 민족적자존심, 그 어떤 시련과 난관도 과감히 뚫고 완강하게 돌진하는 백절불굴의 정신력, 모든 일을 천년을 책임지고 만년을 보증할수 있게 최상의 수준에서 해놓는 숭고한 미래관이 온 나라에 꽉 차넘쳐야 한다. 오늘의 대고조진군을 통하여 혁명적군인정신을 체질화한 우리 근로자들의 영웅적투쟁본때를 다시한번 힘있게 과시하여야 한다.

최첨단돌파전을 더욱 드세차게 벌려야 한다.

승리와 성과에 자만을 모르고 전진 또 전진, 비약 또 비약해온것이 우리 근로자들의 투쟁력사이다. 우리는 사회주의공업화의 력사적위업도 수세기를 도약하여 단 14년만에 이룩하였고 21세기의 첫 10년대도 대혁신, 대비약의 년대기로 빛내여왔다.

오늘의 최첨단돌파전은 강성대국건설의 최후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거창한 투쟁이다. 전체 근로자들은 우리 당의 최첨단돌파사상을 받들고 모든 전선에서 비약의 폭풍을 더욱 세차게 일으켜나가야 한다. 원대한 목표와 완강한 실천력으로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계속 힘있게 벌려나가야 한다.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혁신적안목을 가지고 최신과학기술을 생산에 적극적으로 도입하기 위한 사업을 실속있게 짜고들어야 한다.

지식인들은 최첨단돌파전의 기수들이다. 과학자, 기술자들은 높은 리상과 비상한 각오를 가지고 하나의 발명을 해도 세계를 압도할수 있게 최상의 수준에서 해나가야 한다. 생산자대중과의 협조를 강화하여 강성대국건설에 실질적으로 이바지할수 있는 연구성과들을 더 많이 내놓아야 한다. 문학예술, 출판보도부문의 지식인들은 시대와 력사앞에 지닌 사명감을 깊이 자각하고 대고조격전의 진군나팔수로서의 역할을 훌륭히 수행하며 최첨단을 향하여 맹렬히 돌진하는 선군조선의 비약의 기상을 온 세상에 힘있게 떨쳐야 한다.

우리 근로자들은 언제나 투철한 사회주의원칙과 반제계급의식을 지니고 세계의 자주화를 위한 진보적인민들의 투쟁을 적극 지지하고 고무하여왔다. 우리의 전체 근로자들은 앞으로도 정의와 평화, 반제자주를 지향하는 세계 진보적인민들과의 련대성을 끊임없이 강화해나갈것이다.

장구한 기간 당과 수령에 대한 절대적인 충정과 혁명위업에 대한 필승의 신념을 지니고 위대한 투쟁력사와 전통을 창조하여온 근로자들의 대부대가 있기에 우리 조국의 미래는 끝없이 창창하다.

모두다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두리에 일심단결하여 강성대국건설과 주체혁명의 새 승리를 위하여 더욱 억세게 싸워나가자.

선군혁명의 주력군이 창조한 자랑찬 위훈

희천발전소 룡림언제콩크리트치기가 700여일만에 끝났다

【평양 4월 30일발 조선중앙통신】 강성대국건설의 최전선인 희천발전소건설장에서 대고조진군을 힘있게 추동하는 승리의 포성이 울려퍼졌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웅대한 구상따라 희천발전소건설에 떨쳐나선 조선인민군 군인건설자들이 선군혁명의 주력군답게 혁명적군인정신으로 질풍같이 내달려 제일 어렵고 방대한 룡림언제의 콩크리트치기를 700여일동안에 끝내는 자랑찬 위훈을 세웠다.

혁명군대의 백절불굴의 정신력과 혁명적전개력, 대중적영웅주의에 의하여 10년이상 걸려야 할 대규모의 건설이 불과 2년만에 기본적으로 끝남으로써 장자강상류의 심심산중에 만년대계의 언제가 솟구쳐올라 웅장한 자태를 드러냈다.

새로운 천리마속도, 희천속도를 조국청사에 아로새기며 승리의 개가를 올린 군인건설자들의 불멸의 위훈은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 주신 명령을 단 한치의 드팀도 없이 결사관철하는것을 신념화, 체질화한 우리 군대만이 떨칠수 있는 위력이며 강성대국에로 치달아오르는 조선의 기상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전군, 전민이 당의 두리에 일심단결하여 혁명적군인정신과 투쟁기풍으로 살며 싸워나갈 때 이 세상에 우리를 당할 강적이 없고 우리가 점령하지 못할 요새가 없습니다.》

당의 부름이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는 인민군군인들은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명령을 받아안은 즉시 희천땅으로 달려가 발전소건설에 진입하였다.

인민군대에 제일 어려운 룡림언제건설을 통채로 맡겨주시고 주체98(2009)년 3월 25일 산세험한 건설장을 찾으시여 우리 식의 언제건설공법도 밝혀주신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현명한 령도와 크나큰 믿음은 기적창조의 무한대한 원동력으로 되였다.

북방의 추위속에서도 혁명의 붉은 피를 펄펄 끓이며 주체98(2009)년 4월 착공의 첫삽을 박은 군인건설자들의 영웅적투쟁에 의해 물소리만 들리던 심산속이 선군조선의 창조본때를 보여주는 총포성없는 전투장으로, 강성대국건설의 최전선으로 되였다.

안변청년발전소건설을 비롯한 중요대상건설들을 맡아 기념비적창조물로 훌륭히 일떠세운 자랑스러운 전통을 가지고있는 조선인민군 부대들이 룡림전역에서 비약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렸다.

조선인민군 청년돌격대원들은 가파로운 산중턱의 암반을 까내며 언제건설을 위한 수십리 도로를 짧은 기간에 번듯하게 닦아놓았다.

가장 어려운 고비인 언제기초공사를 앞당겨 끝내기 위한 총돌격전이 벌어졌다.

군인건설자들은 《백번천번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 승리의 돌파구를 열자!》는 불굴의 신념과 의지를 안고 가물막이전투를 불이 번쩍 나게 해제낀데 이어 2년나마 걸린다던 가배수로형성을 석달만인 7월에 끝내는 혁혁한 성과를 거두었다.

150일전투의 불길속에 장마철의 불리한 조건에서도 기초굴착을 위한 투쟁이 힘있게 벌어져 매일 평균 3 600여㎥의 토량이 처리되였다.

언제기초굴착과 함께 기초콩크리트치기가 동시에 전개되였다.

군인건설자들은 수천㎥의 부재생산기지를 꾸려놓고 부재생산을 선행시키면서 매달 8만여㎥의 콩크리트치기를 하여 언제중심바닥의 방대한 콩크리트타입을 성과적으로 끝냈다.

몇년이 걸려야 할 작업량이 단 5개월동안에 끝나고 그해에 가배수로형성과 언제기초공사가 완공되여 언제쌓기에 들어간것은 수력발전소건설력사에 있어본적이 없는 기적이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주체98(2009)년 9월 건설장을 찾으시여 분과 초가 그대로 비약과 혁신으로 흐르며 세인을 경탄시키는 기적이 끊임없이 창조되고있는 위대한 속도를 새로운 천리마속도, 희천속도로 명명해주시며 군인건설자들을 뜨겁게 고무격려해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주체99(2010)년 한해동안에만도 -30℃를 오르내리는 정초부터 한해가 저무는 12월의 말까지 희천발전소건설장을 무려 4차례나 찾으시여 인민군대가 강성대국건설대전에서 앞장서 내달리도록 이끌어주시고 나아갈 앞길을 환히 밝혀주시였다.

병사들의 겨울나이준비까지 헤아리시며 특별감사문까지 보내주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크나큰 믿음과 사랑속에 룡림전구에서는 날과 달이 감에 따라 대혁신, 대비약이 창조되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 다진 맹세를 결사관철할 각오와 배짱을 안고 전진의 시간표를 설정한 조선인민군 부대들은 기본언제의 콩크리트치기를 위한 대격전을 벌려나갔다.

언제건설장에 기계화전, 립체전의 열풍이 세차게 몰아쳤다.

군인건설자들은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안겨주신 무비의 공격정신으로 능률적인 로라다짐에 의한 콩크리트치기방법을 도입하여 언제건설을 최단기간내에 끝낼수 있는 전망을 열어놓았다.

기본언제콩크리트치기와 함께 언제좌안, 우안의 암반굴착도 동시에 진행되였다.

암질조건에 맞는 천공, 발파방법이 도입되고 경쟁바람이 세차게 불어쳐 암반굴착량은 10배로 높아지고 언제전구간에 콩크리트타입전선이 형성되였다.

기계화전으로 비상히 높아지는 언제건설속도에 맞게 지휘부에서는 콩크리트치기에서 최고기록을 돌파할 대담하고 통이 큰 목표를 내세우고 공사를 립체적으로 전개해나갔다.

혼합장의 대형화를 실현하고 골재보장을 선행시키기 위한 빈틈없는 작전이 펼쳐졌다.

군인건설자들은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으로 예비와 가능성을 최대한으로 동원리용하여 골재선별, 파쇄, 혼합설비, 수송수단들을 원만히 갖추고 혼합물생산과 수송을 종전보다 3배이상으로 끌어올리였다.

대형기중기에 의한 혼합물폭포가 쏟아지고 자동차와 벨트콘베아에 의한 혼합물수송이 본격화되였다. 언제좌안, 우안과 중심구간에서 동시에 진행되는 격렬한 립체전속에서 하루에 1만여㎥의 콩크리트치기를 하는 전례없는 대혁신이 일어났다.

언제착공으로부터 불과 1년반 남짓한 기간에 언제콩크리트치기의 80%계선을 돌파한것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가르쳐주신 기계화전, 립체전의 기본공격방식이 낳은 경이적인 비약이다.

당의 구상과 결심을 최단기간내에 실현하기 위한 결사의 투쟁속에서 오명필소속부대 군인건설자들은 새로운 휘틀조립방법으로 콩크리트치기속도를 계속 높여 언제건설전반을 다그치는데 큰 기여를 하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 하루빨리 완공의 보고를 올릴 불타는 일념이 룡림전역에 나래치는 속에 무넘이구간의 다리보와 비상수문구, 방틀, 도로확장공사 등 마감단계의 공사가 빠른 속도로 추진되였다.

수송전사들도 마지막돌격전의 결승주로를 질풍같이 내달리며 수송실적을 매일 2배로 올리였다.

공격전의 나날 산중턱의 도로공사장에서 수십㎥의 돌을 날라다 커다란 《화분》을 만들어 뿌리가 드러난 한그루의 소나무를 살린 병사들의 열렬한 조국애는 혁명적군인정신의 창조자들이 지닌 숭고한 사상정신적풍모를 가슴뜨겁게 보여주었다.

룡림언제건설에는 군인가족들도 떨쳐나 가족경제선동과 가족지원활동을 활발히 벌리고 조선인민군협주단을 비롯한 각급 부대 예술선전대들이 기동적인 화선식예술선동의 북소리를 높이 울려 전투장마다에서 최후공격전의 《산울림》이 더욱 힘있게 울려퍼지게 하였다.

조선인민군 군인들이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명령에 대한 절대성, 무조건성의 정신과 애국적헌신성, 일심단결의 위력으로 벌린 과감한 총공격전의 날과 달이 끊임없이 흘러 마침내 콩크리트치기가 완성되고 언제정점우에 승리의 기발이 휘날리게 되였다.

희천발전소 룡림언제콩크리트치기의 완성은 령도자에 대한 절대불변의 충실성을 지닌 혁명적군인정신의 창조자들이 강성대국건설의 맨앞장에서 달리고있기에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구상은 반드시 실현된다는 철리를 힘있게 과시하였다.

당의 뜻을 충직하게 받드는 인민군대의 영웅적투쟁과 비상한 애국열의에 의하여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 100돐이 되는 2012년까지 희천발전소건설을 끝낼수 있는 확고한 전망이 열렸다.

인민군군인들의 무비의 위훈에 격동된 희천발전소 건설자들은 위대한 장군님의 믿음과 기대를 심장깊이 간직하고 당이 제시한 전투목표를 앞당겨 점령하기 위해 최전선의 광활한 전역에서 총돌진하고있다.

당의 령도따라 강성대국건설의 최대진군속도를 창조해가는 우리 군대와 인민은 혁명적군인정신으로 희천발전소완공을 향해 폭풍쳐달려 위대한 수령님의 유훈과 경애하는 장군님의 웅대한 구상을 반드시 실현할것이다.

절세위인들의 품속에서 꽃펴난 근로인민의 참된 삶

위대한 당의 령도따라 천만군민이 강성대국의 대문을 열어제끼기 위한 투쟁에서 대혁신, 대비약의 불길을 세차게 일으켜나가고있는 이 땅에 뜻깊은 5. 1절이 왔다.

김철의 신념, 김철의 본때, 김철의 실천력으로 대고조의 승리를 안아올 불같은 맹세안고 온 나라 인민이 일터마다에서 놀라운 위훈을 창조해가는 격동적인 시기에 이날을 맞는 우리 인민의 가슴속에서는 근로인민대중에게 값높은 자주적삶을 안겨주시고 부강조국건설의 믿음직한 담당자, 힘있는 력량으로 키워주신 백두산위인들에 대한 한없는 고마움과 열렬한 흠모의 정이 넘쳐나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수령님께서는 언제나 인민을 절대적인 존재로 내세우시고 로동자, 농민, 근로인테리를 비롯한 근로인민대중을 위하여 모든것을 바쳐오시였습니다.》

우리의 심장에 뜨겁게 새겨진다.

이민위천을 필생의 좌우명으로 간직하시고 인민들이 있는 곳이라면 아무리 멀고 험하다 해도 다 찾아가시는 위대한 선군령장의 헌신의 그 모습이.

압록강다이야공장, 강계고려약공장, 김책제철련합기업소, 혜산청년광산, 성진제강련합기업소, 룡성기계련합기업소…

어버이수령님에 대한 그리움이 더욱 북받쳐오르는 지난 4월에만도 우리 장군님께서 이어가신 현지지도의 길은 그 얼마인지 모른다.

언제나 어버이수령님과 심장의 대화를 나누시며 함께 걸으신 그 길에서 로동계급을 비롯한 우리 근로자들의 자그마한 성과도 크게 일러주시고 더 높은 목표를 향하여 내달리도록 힘과 지혜와 열정을 안겨주시였으며 하늘같은 믿음과 사랑도 베풀어주신 경애하는 그이이시다.

조선혁명은 위대한 수령, 위대한 령도자를 높이 모신 근로인민만이 사회주의위업수행에서 자기의 력사적사명과 역할을 다해나갈수 있고 영광스러운 투쟁전통을 꿋꿋이 이어나갈수 있다는것을 진리로 확증한 혁명이다.

일찌기 인민이 선생이고 이 세상에 인민대중보다 더 힘있는 존재는 없다는 투철한 관점을 지니시고 근로인민대중을 혁명과 건설에로 적극 조직동원하시여 우리 조국의 년대들마다에 세인을 놀래우는 력사의 기적을 창조하신 백두산위인들의 비범한 예지와 걸출한 령도에 대해 이야기하자면 몇백밤을 새워도 다 못할것이다.

절세위인들의 그 위대하고 따사로운 손길이 있어 지난날 억압과 천대, 멸시속에 살아가던 로동자, 농민, 지식인을 비롯한 근로대중이 나라의 주인으로, 기적과 혁신의 창조자들로 자라나고 그 후손들이 오늘은 강성대국건설대전의 참전자로서의 영예를 더욱 빛내이고있는것 아니랴.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의 창시자이신 위대한 수령님의 령도밑에 의식화, 조직화된 로동자, 농민, 애국청년들이 혁명의 총대를 억세게 틀어잡고 이 땅에 안아온 항일혁명투쟁에서의 승리를 생각할수록 뜨거운 격정을 금할수 없다.

뜻깊은 명절을 맞는 이 시각 우리의 눈앞에 항일의 나날 5. 1절이면 밀림속에서 대원들의 가슴속에 조국과 인민에 대한 열렬한 사랑의 정신을 굳게 심어주시고 혁명군대와 인민의 단결을 더욱 강화해나가시던 백두산청년장군의 모습이 뜨겁게 안겨온다.

고난의 행군을 승리적으로 결속한 긍지를 안고 조국진군을 앞둔 커다란 기쁨속에 사령관동지를 모시고 조선인민혁명군 대원들이 소덕수등판에서 맞이한 주체28(1939)년의 추억깊은 5. 1절,

희한한 군민경축대회가 진행된 소덕수의 밀림속에 차넘치던 승리의 신심과 랑만에 넘친 노래소리, 웃음소리는 그후 무산지구전투승리의 함성으로 내 조국땅에 힘있게 울려퍼졌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개구리료리로 명절음식을 대신하였다고 감회깊이 회고하신 주체29(1940)년 5. 1절에 대한 이야기는 또 얼마나 깊은 감회를 불러일으키는것인가.

잊을수 없는 그날 타오르는 우등불가에서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전우들에게 오늘은 비록 우리가 개구리료리로 5. 1절을 쇠였지만 일제를 타도한 다음에는 평양에 가서 대동강의 숭어료리로 조국해방을 경축하자고 하시며 모두가 래일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조국해방을 위해 더 억세게 싸워나갈데 대하여 강조하시였다.

위대한 락천가, 배짱가이신 백두산청년장군께서 안겨주신 백절불굴의 혁명적락관주의, 필승의 신념이 투사들의 가슴에서 언제나 불타올랐기에 싸움마다에서 승리의 함성이 드높았고 조국해방의 새날도 맞이할수 있었다.

항일의 나날만이 아니다.

해방된 조국땅에서 맞이한 첫 5. 1절날이였다. 이날 혁명의 수도 평양에서는 5. 1절기념 평양시군중대회가 진행되였다.

나라일에 그처럼 바쁘신 속에서도 대회에 몸소 참석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5. 1절을 맞이하여 조선동포들에게 고함》이라는 력사적인 연설을 하시였다.

그이의 격동적인 연설은 새 민주조선건설에 떨쳐나선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근로인민대중의 혁명적열의를 활화산처럼 불러일으켰다.

뿐만아니라 내 나라의 하늘가에 노래 《승리의 5월》이 힘차게 울려퍼지도록 하심으로써 근로자들을 건국위업의 빛나는 승리에로 적극 고무추동하신 우리 수령님이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지금으로부터 60년전인 주체40(1951)년 5월 1일, 불비쏟아지던 가렬처절한 전화의 그날에는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명령 《5. 1절에 즈음하여》를 하달하시여 우리 인민군장병들과 로동자, 농민, 지식인들에게 승리의 신심과 용기를 안겨주시였다.

언제나 근로인민대중을 굳게 믿고 내세워주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해빛보다 따사로운 품이 있었기에 혁명의 년대들마다에서 우리 근로자들모두가 사회주의건설에서 눈부신 위훈을 창조해올수 있은것이다.

진정 한평생 근로하는 인민대중속에 계시면서 그들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치시였으며 로동자, 농민, 지식인들을 부강조국건설의 당당한 주인으로 키워주시고 이 땅우에 자주, 자립, 자위의 사회주의강국을 일떠세워주신 우리 수령님의 하늘같은 은공을 천만군민은 대대손손 전해갈것이다.

자주시대의 요구에 맞게 근로인민대중의 전투적위력과 창조적힘에 의거하여 혁명을 승리의 한길로 이끌어오신 위대한 수령님의 로숙하고 세련된 령도의 고귀한 전통과 업적은 오늘 또 한분의 희세의 위인이시며 백두의 선군령장이신 경애하는 장군님에 의하여 튼튼히 고수되고 빛을 뿌리고있다.

우리 수령님께서 지니신 이민위천의 리념을 자신의 숭고한 좌우명으로 간직하시고 사랑하는 인민을 위해 낮이나 밤이나 애국의 열정을 깡그리 불태우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헌신의 그 길우에 꽃펴난 감동깊은 이야기들은 많고많다.

자신도 근로하는 인민의 아들이라고, 자신의 마음의 첫자리에는 언제나 인민이 있다고 하시며 인민들과 한치의 간격도 없이 겸허하게 생활하시고 오로지 인민생활향상을 위하여 사색과 로고를 다 기울이시면서 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위업을 승리의 한길로 령도하시는 경애하는 장군님,

전후 천리마대고조시기 19만t의 공칭능력을 타파하고 27만t의 선철을 뽑아낸 기적의 력사를 안고있는 김철의 로동계급이 울린 주체철의 장쾌한 고고성은 과연 어떻게 터져오른것이던가.

그것은 바로 경애하는 장군님의 절대적인 믿음과 사랑속에서 창조된 또 하나의 기적이였다.

10여년전 어느날 김철의 구내길을 걸으시며 규모로 보나 생산량으로 보나 우리 나라에 김철만 한 금속공장은 없다고, 김철은 우리 나라 사회주의경제건설의 생명선이라고 말씀하시던 우리 장군님의 모습이 뜨겁게 안겨온다.

그날 대도로로 나가자면 골목길을 지나야 한다고, 비콕스제철법이 가능하겠는가 하는데 대하여 머리를 기웃거리거나 이것저것 타산하면서 재지 말고 그 방법을 무조건 받아들여야 한다는 립장을 가지고 끌장을 보아야 한다고 크나큰 고무도 주시며 주저앉을세라, 맥을 놓을세라 걸음걸음 이끌어주신 그이이시다.

어찌 주체철만이랴.

100% 우리의 힘과 기술로 만든 인공지구위성 《광명성1》호, 《광명성2》호의 성과적발사, 주체비날론, 주체비료폭포, 대계도기적, 협동벌들에 타오르는 사회주의경쟁의 세찬 불길…

이 땅 그 어디에서나 터져오르는 기적과 위훈의 새 소식들은 모두가 경애하는 장군님을 령도자로 모신 내 나라, 내 조국의 휘황한 래일을 내다보게 한다.

경이적인 사변들이 시시각각 다계단으로 일어나는 눈부신 현실을 대할수록 자애로운 선군령장의 뜨거운 은정이 삼삼히 어려온다.

두해전 전세계근로자들의 국제적명절인 5. 1절을 맞으며 로동자대표들을 수도 평양으로 불러주시고 그들과 함께 공훈국가합창단의 공연을 보신데 이어 축포야회 《우리는 승리하리라!》와 대경축연회까지 마련해주시였으며 개건된 평양대극장에서 또다시 우리 로동계급과 자리를 같이하시고 혁명가극 《꽃파는처녀》공연을 관람하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대해같은 믿음과 사랑,

하늘가에 터져오르는 축포의 불야경을 보시면서도 우리 인민들에게 천만가지 꽃피는 행복을 안겨주고싶다고, 그것이 바로 축포에 비낀 자신의 리상이고 희망이라고 절절히 말씀하신 어버이장군님이시다.

걸출한 선군령장이신 위대한 장군님께서 계시는 한 이 땅, 이 하늘아래 인민의 리상이 천가지만가지로 꽃피는 사회주의강성대국이 반드시 일떠선다는 필승의 신념을 가지고 우리 군대와 인민은 혁명적대고조의 총공세를 더욱 힘있게 벌려나갈것이다.

본사기자 계 성 남

현지지도의 길에서 — 인민의 행복을 위한

현지에서 찾아주신 방도

언제인가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어느 한 닭공장을 찾으시였을 때의 일이다.

일군들과 다정히 인사를 나누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한 일군에게 생산정형에 대하여 물으시였다.

일군은 선뜻 대답을 드릴수 없었다. 여러가지 원인으로 생산량이 늘어나지 못하고있었던것이다.

그의 이런 속마음을 헤아리신듯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이 닭공장은 이곳 로동계급의 식생활을 개선하는데서 중요한 몫을 맡고있는것만큼 고기와 알생산을 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공장의 생산을 다시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방도들을 하나하나 가르쳐주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고기와 알생산을 정상화하자면 먹이문제를 원만히 해결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닭먹이를 제대로 보장하자면 사료생산단위들에 닭배설물을 많이 보내주어 풍요한 작황을 이룩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가르쳐주시였다.

알낳이직장을 돌아보실 때에도 그이께서는 최신식설비들로 꾸려진 공장을 쉬임없이 돌리자면 생산자들의 기술기능수준을 끊임없이 높이는것이 중요하다고 일깨워주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이밖에도 과학적인 육종체계를 세워 우리 나라의 기후풍토에 맞는 우량품종을 보장해줄데 대한 문제, 닭사양관리를 과학화할데 대한 문제, 엄격한 방역체계를 세울데 대한 문제 등 크고 작은 문제들에 대하여 구체적인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우리 인민들의 식생활향상을 위해 크나큰 심혈을 기울이시며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는 어버이장군님을 우러르며 일군들은 이렇게 마음다지였다.

—경애하는 장군님, 장군님의 높은 뜻을 받들어 인민의 참된 충복답게 일을 더 잘해나가겠습니다!

실리가 있는 공장

몇해전 7월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어느 한 피복공장을 찾으시였다.

이날 이곳 일군들과 로동자들이 일을 잘하고있다는 보고를 여러차례 받고 한번 와보려고 하였지만 시간이 없어 오늘에야 왔다고 하시면서 공장일군들과 다정히 인사를 나누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공장의 여러곳을 돌아보시였다.

어느 한 가공직장에 들리시여 쌓아놓은 제품들을 보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이 제품들은 재단하면서 실수률을 높여 남은 천으로 만든것인데 공장종업원들과 시안의 어린이들에게 공급하게 되여있으면 좋다고, 형식도 좋고 잘 만들었다고 치하해주시였다.

그러시고는 방석안에 제품을 만들 때 나오는 솜자투리를 넣었다는데 이 공장에서는 버리는것이 하나도 없는것 같다고, 살림살이를 깐지게 한다는것이 알린다고 하시며 못내 만족해하시였다.

인민생활향상을 위해 끝없는 심혈과 로고를 바쳐가시는 경애하는 장군님께 조금이나마 기쁨을 드린것으로 하여 공장일군들의 얼굴마다에는 행복의 미소가 어려있었다.

장한 일을 한 자식을 두고 기뻐하는 친부모의 심정그대로 그들을 대견하게 바라보시던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이 공장은 인민을 위하여 충실히 복무하는 공장, 실리가 있는 공장이라고 값높이 평가해주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이 말씀에는 이 공장일군들과 종업원들이 사회주의강성대국의 대문을 하루빨리 열어제낄 불타는 애국의 한마음을 안고 모든 난관을 박차고 계속혁신의 한길로 줄달음치기를 바라시는 크나큰 믿음과 기대가 어려있었다.

본사기자

몸소 가르쳐주신 강냉이농사방법

한평생 농장길, 포전길을 걷고 걸으신 어버이수령님의 현지지도의 길우에는 강냉이농사방법에 대하여 하나하나 가르쳐주시던 가슴뜨거운 이야기도 새겨져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수령님은 그 어느 위인과도 대비할수 없는 위대한 령도자, 위대한 혁명가, 위대한 인간이시였습니다.》

주체64(1975)년 2월 어느날이였다.

이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안주군(당시) 상서협동농장을 찾으시였다.

새해농사차비로 들끓는 작업장에 이르시여 한 분조장을 손저어 부르신 그이께서는 지난해 농장에서 강냉이는 정보당 얼마나 수확했으며 평당 포기수를 어떻게 보장했는가, 올해에는 강냉이농사를 어떻게 하려고 하는가에 대하여 다정히 물으시였다.

그의 대답을 들으신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지난해 정보당 수확고가 떨어진것은 평당 강냉이포기수를 제대로 보장하지 못한데 원인이 있다고 하시면서 밭으로 들어서시였다. 그러시고는 눈을 파헤치시고 땅에 박혀있는 강냉이그루터기들을 세여보시였다.

이윽고 어버이수령님께서는 동행한 일군들을 둘러보시며 올해에 강냉이농사를 잘 지어야 하겠다고, 강냉이농사를 잘하기 위하여서는 평당 강냉이포기수를 정확히 보장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지난해에 이 협동농장에서도 평당 강냉이포기수를 기술지표보다 2~3대씩 넣지 못하였다고, 올해에는 평당 강냉이포기수를 정확히 보장하여야 하겠다고 강조하시였다.

그이의 귀중한 가르치심을 받아안으며 깊은 자책감에 얼굴을 붉히고있던 분조장이 마음을 다잡고 올해 강냉이농사에서는 평당 포기수를 철저히 보장하여 더 많은 소출을 내겠다고 결의다지였다. 그러자 어버이수령님께서는 평당 강냉이포기수를 보장한다고 하면서 무턱대고 외줄로 배게 심을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강냉이가 잘 자라지 못하게 된다고 하시며 강냉이는 톱날형으로 심어야 한다고 가르쳐주시였다. 그러시고도 마음이 놓이지 않으신듯 그이께서는 손으로 눈덮인 포전우에 톱날형으로 심는 모양을 지어보이시며 이렇게 강냉이를 심으면 평당 포기수를 기술규정의 요구대로 보장하면서도 포기사이 간격을 유지하기때문에 빛합성이 잘되여 강냉이가 자라는데 지장이 없다고 알기 쉽게 일깨워주시였다.

순간 그는 앞이 탁 트이는것만 같았다.

사실 그들이 지난해 평당 포기수를 제대로 보장하지 못한 중요한 원인의 하나는 포기수를 늘이게 되면 간격이 좁아져 바람이 잘 통하지 않고 강냉이잎들이 빛을 충분히 받을수 없지 않겠는가 하는 걱정때문이였다.

그런데 어버이수령님께서 가르쳐주신 방법대로 한다면 이 모든 문제들이 순간에 다 해결될수 있었던것이다.

(어쩌면 그렇게 농사에 밝으실가?)

일군들은 어버이수령님의 해박한 지식에 깊이 탄복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여기에 어떤 가슴뜨거운 사연이 깃들어있는지 후날에야 알게 되였다. 인민생활을 하루빨리 향상시키시려고 어버이수령님께서 저택의 시험포전에서 손수 강냉이를 심어가꾸시면서 이렇게 강냉이농사방법을 하나하나 완성하신것이라는것을.

그날로부터 세월은 멀리 흘렀어도 인민생활향상을 위하여 온갖 사색과 심혈을 기울여오신 어버이수령님의 하늘같은 사랑에 대한 이야기는 오늘도 천만군민의 심장마다에 세찬 격정을 불러일으키며 길이 전해지고있다.

김 명 훈

수령결사옹위의 숭고한 모범을 따라배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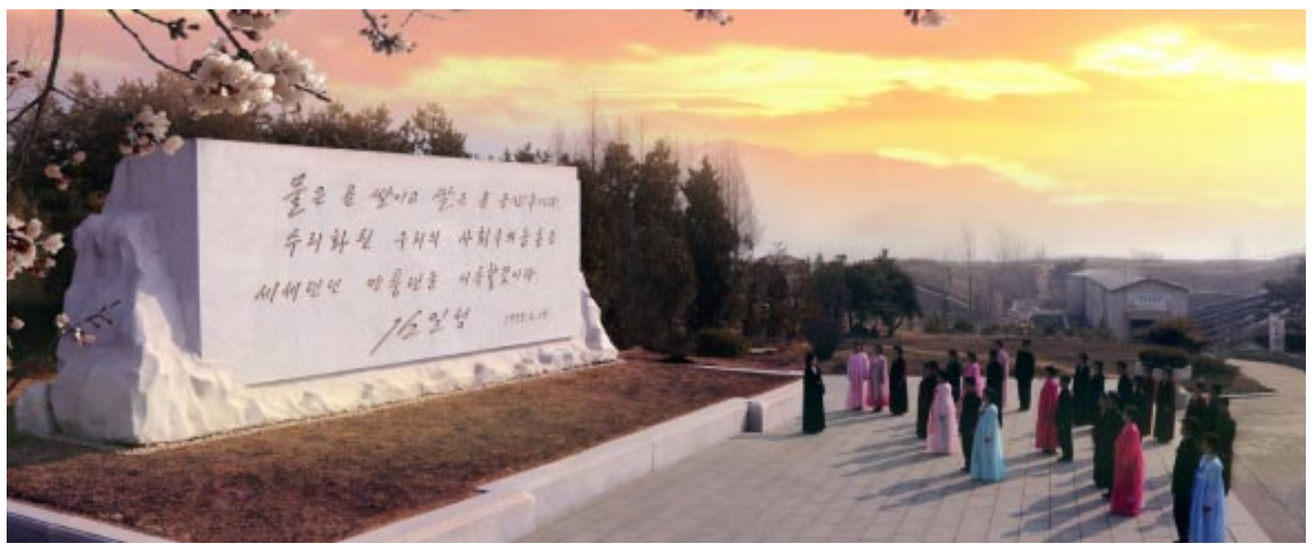
신천군 호암리당위원회에서는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께서 보여주신 투철한 수령결사옹위정신으로 당원들과 농장원들을 튼튼히 무장시키기 위한 사업을 계속 힘있게 벌려나가고있다.

리당위원회에서는 당세포 및 근로단체조직들에서 정치사업계획을 주별, 월별로 구체적으로 세우고 이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도록 적극 이끌어주고있다. 그리고 일군들부터 백두산녀장군 김정숙동지의 혁명업적을 수록한 도서들과 귀감자료들을 깊이 연구학습한데 기초하여 농장원들에게 적극 해설선전하도록 하고있다.

얼마전에도 리당위원회의 한 일군은 영농전투로 들끓는 제2작업반에 나가 농장원들과 함께 일하다가 휴식참을 리용하여 피어린 항일의 나날 김정숙동지께서 위대한 수령님의 신변안전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하신 생동한 자료를 가지고 화선식정치사업을 진행하였다. 그는 김정숙동지께서 한몸의 위험을 무릅쓰시고 적들을 유인하신 홍기하전투, 위기일발의 순간에 사령관동지를 막아나서시며 적들에게 명중탄을 안기신 대사하치기전투이야기 등을 실감있게 들려주었다. 그의 이야기는 사람들의 심금을 뜨겁게 울려주었다.

로농통신원 박 영 희

어버이수령님의 뜻깊은 친필 우리 인민의 마음속에 영원히 빛난다



여기에 어버이수령님의 친필을 보여주는 한장의 사진이 있다.

《쌀은 곧 쌀이고 쌀은 곧 공산주의다.

수리화된 우리의 사회주의농촌은 세세년년 만풍년을 이룩할것이다.

김 일 성

1992. 4. 15》

뜻깊은 이날에 쓰신 친필의 사연을 아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못할것이다.

나라의 중요알곡생산기지인 황해남도의 농업발전에 깊은 관심을 돌려오신 어버이수령님께서는 1946년 1월부터 수십차례나 도를 찾으시여 수리화의 완성을 위한 웅대한 설계도를 펼쳐주시였다.

그 휘황한 설계도에 따라 은파호, 구암호, 장수호를 비롯한 수많은 저수지들이 건설되였고 대규모의 청단관개공사를 비롯한 수많은 물길공사들이 진행되였다.

뿐만아니라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서해갑문준공식을 선포한 직후인 1986년 11월에 황해남도를 우리 나라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테제가 전면적으로 실현된 도로 만들자면 수리화를 실현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몸소 서해갑문—신천지구물길공사를 발기하시고 련이어 서해갑문—신천—강령, 옹진물길공사를 진행하도록 이끌어주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어버이수령님의 원대한 구상을 실현하시기 위하여 례성강물길공사와 서해갑문—장수호역수물길공사를 빠른 기간에 끝내도록 몸소 진두에서 이끌어주시였다.

그리하여 그처럼 방대한 공사가 짧은 기간에 완공되여 수수천년 서해바다로 흘러들던 대동강과 례성강물이 서해곡창 재령벌과 연백벌을 비롯한 도안의 논벌로 흘러드는 로동당시대의 새 전설이 생겨나게 되였다.

대륜환식관개체계가 마련되여 농사에서 큰 덕을 입고있다는 보고를 받으신 어버이수령님께서는 너무도 기쁘시여 여느날도 아닌 만민의 축복을 받으셔야 할 뜻깊은 4월 15일 집무실에서 붓을 드시고 이렇듯 축복의 친필을 써주시였던것이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물에 대한 우리 농민들의 세기적숙망을 풀어주신 어버이수령님의 크나큰 그 은덕을 후손만대에 길이 전하려는 인민들의 절절한 마음을 헤아리시여 서해갑문—신천—강령, 옹진물길이 시작되는 여기 **신천군 청산리**에 친필명제비를 세우도록 하시였다.

그 전설같은 이야기는 사회주의무릉도원으로 꽃피는 우리 협동벌과 더불어 길이 전해질것이다.

글 및 사진 본사기자 김 종 훈

불패의 군력이 담보하는 오늘의 선군대고조

오늘 우리 로동계급을 비롯한 전체 근로자들의 가슴속에는 백두산위인들의 슬하에서 무적필승의 혁명강군으로 자라난 인민군대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이 차넘치고있다.

인민군대는 당의 선군혁명령도따라 사회주의조국을 철벽으로 지키며 오늘의 대고조를 굳건히 담보해나가고있는 혁명의 주력군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오늘의 대고조는 무적의 총대가 담보하고 선도해나가는 선군대고조입니다.》

우리 인민군대는 수십성상 위대한 당의 선군령도밑에 그 어떤 강적도 단매에 때려부실수 있는 일당백의 혁명무력으로, 사회주의건설에서 비약의 폭풍을 일으켜나가는 기적창조의 대부대로 강화발전되였다. 인민군대의 혁명성과 전투성은 그 어느 사회적집단도 따를수 없다. 인민군대를 혁명의 주력군으로 내세운 우리 당의 선군령도가 있었기에 고난의 행군, 강행군의 시련속에서 새 세기 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의 도약대가 마련되고 강성대국의 려명이 밝아올수 있었다. 선군은 사회주의조국보위와 강성대국건설을 위한 필승의 기치이다.

오늘 인민군대는 우리 혁명의 핵심, 기둥으로서 불패의 위용을 떨치고있다. 조국보위도 사회주의건설도 우리가 다 맡자는 구호를 들고 질풍같이 나아가는 인민군대의 혁명정신과 투쟁기풍은 시대의 본보기이다. 인민군대는 대고조진군의 돌파구를 앞장에서 열어나가고 온 나라 전체 인민이 군인정신, 군인기질, 군인본때로 오늘의 총공격전을 힘있게 다그치고있다. 선군의 위력으로 폭풍쳐 전진하는 바로 여기에 우리 시대 혁명적대고조의 특징이 있고 강성대국의 대문을 열어제끼는 지름길이 있다.

오늘의 대고조시대에 우리 인민군대는 총대로 제국주의자들의 침략책동을 짓부시며 강성대국건설의 승리를 담보해나가고있다.

사회주의건설은 제국주의자들과의 힘의 대결을 동반하게 된다. 사회주의에 대한 제국주의의 도전과 압살책동에서 기본수단은 군사력이다. 군사적위협과 침략전쟁을 수단으로 하여 세계제패를 실현하려는것은 제국주의자들의 변함없는 야망이다. 날이 갈수록 더욱 오만무례해지고 힘의 만능론을 부르짖는 제국주의반동들을 짓뭉개버리지 않고서는 불패의 강국을 성과적으로 건설할수 없다. 나라와 민족의 륭성번영을 위해서는 총대, 군력이 강해야 한다.

우리 당의 선군혁명로선, 선군정치는 군사를 제일국사로 내세우고 인민군대를 무적필승의 혁명무력으로 강화하여 사회주의조국의 안전과 혁명의 전취물을 사수하는 백승의 보검이다. 우리 당은 혁명의 전력사적로정에서 총대중시, 군사중시의 기치를 높이 들고 인민군대강화에 모든 힘을 기울여왔다. 위대한 선군의 기치가 있었기에 우리 군대는 백두산혁명강군으로 억세게 자라나 미제와 온갖 원쑤들의 침략책동을 무적의 총대로 짓부시며 우리 인민의 사회주의건설을 굳건히 담보해올수 있었다.

오늘 우리 인민은 강성대국의 대문을 열어제끼기 위한 총공격전을 힘있게 벌리고있다. 나라의 이르는 곳마다에서 경이적인 사변들이 다계단으로 일어나고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가 힘있게 추진되고있다. 우리 인민이 제국주의자들의 악랄한 침략책동속에서도 국가경제력강화에 모든 힘을 총집중, 총동원하며 세기적인 변혁을 일으키고있는것은 강성대국건설의 무력적담보가 있기때문이다.

우리 인민군대는 날로 격화되는 적들의 침략책동에 대처하여 고도의 격동상태를 견지하고있다. 만일 적들이 우리 조국의 한치의 땅이라도 침범하거나 우리의 정정당당한 자주권행사에 대하여 감히 훼방하려든다면 정의의 보복타격전으로 침략의 아성을 무자비하게 짓뭉개버리려는것이 인민군장병들의 드팀없는 의지이다. 위대한 당의 선군령도밑에 무진막강한 위력을 지닌 불패의 혁명무력이 있기에 우리 조국의 하늘과 땅, 바다는 철벽의 요새이며 온 나라 이르는 곳마다에서 혁명적대고조의 불길은 더욱 거세차게 타오르고있다.

오늘의 대고조시대에 우리 인민군대는 혁명적군인정신으로 강성대국건설을 위한 총공격전을 힘있게 선도해나가고있다.

사회주의건설의 성과여부를 좌우하는 근본요인은 객관적인 물질경제적조건에 있는것이 아니라 주체인 인민대중의 사상정신상태에 있다. 인민대중의 심장에 지펴진 혁명적인 사상정신의 불씨에 의하여 타오르는것이 사회주의건설에서의 혁명적대고조의 불길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이끄시는 선군시대에 우리 군대와 인민은 혁명적군인정신에 기초한 사상과 투쟁기풍의 일치를 확고히 실현하였다. 인민군대에서 창조된 혁명적군인정신은 수령결사옹위정신, 결사관철의 정신, 영웅적희생정신을 기본내용으로 하고있는 우리 시대의 대표적인 혁명정신이다. 혁명적군인정신의 위력은 조국수호전에서뿐아니라 조국의 강성번영을 위한 대고조진군길에서 남김없이 발휘되고있다.

인민군대는 당의 선군령도를 높이 받들고 강성대국건설대전에서 영웅적위훈을 창조하고있는 인민의 행복의 창조자이다. 인민군장병들은 혁명적군인정신으로 안변청년발전소와 녕원발전소를 비롯한 수많은 기념비적창조물들을 일떠세우고 새 세기의 표본으로 되는 현대적인 공장들을 건설하고있으며 인민경제의 어렵고 중요한 부문들을 맡아 돌파구를 열어제끼고있다. 인민군 군인들이 창조한 선군시대의 새로운 천리마속도, 희천속도는 우리 인민의 대고조진군을 힘있게 고무추동하고 경제강국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대비약, 대혁신이 일어나게 하는 원동력으로 되고있다. 《인민을 돕자!》는 구호를 들고 군민단결의 전통적미풍을 숭고한 높이에서 발휘하고있는것도 인민군대이며 혁명적군인문화로 사회를 선도하며 대고조진군의 북소리를 우렁차게 울려나가고있는것도 우리 군대이다.

오늘 우리 인민은 혁명적군인정신을 체질화하고 인민군대를 본보기로 하여 대고조격전장들마다에서 비약의 폭풍을 일으키고있다. 주체철, 주체섬유, 주체비료를 생산할수 있는 확고한 전망이 열려지고 대계도간석지건설의 완공과 같은 불멸의 기적, 경이적인 사변들이 도처에서 련이어 일어나고있는것은 우리 인민이 군인정신, 군인본때로 투쟁하고있기때문이다. 그 어떤 난공불락의 요새도 전격적으로 강행돌파하는 인민군용사들의 일당백속도, 희천속도는 오늘 흥남의 새로운 천리마속도, 조선의 속도로 끊임없이 이어지고있다. 조선은 결심하면 한다, 이것이 우리 군대와 인민의 드팀없는 신념이며 대고조승리의 표대이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당의 선군령도를 높이 받들고 인민군대의 혁명정신과 투쟁기풍으로 계속혁신, 계속전진하며 강성대국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기적과 혁신을 일으켜나가야 할것이다.

김 철 룡

강성대국건설에서 사회주의근로자들의 혁명적기상을 남김없이 떨치자

승리의 신심드높이 비약의 한길로

대흥청년영웅광산의 일군들과 로동계급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대고조진군길에서 새로운 혁신을 창조하며 기세좋게 전진해나가고있는 대흥청년영웅광산의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이 전세계근로자들의 국제적명절인 5.1절을 뜻깊게 맞이하고있다.

온 나라가 다 아는 영웅광산으로 내세워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크나큰 믿음은 광부들모두에게 비약의 나래를 펼쳐주었고 일터마다에서 위훈을 떨치게 하는 힘의 원천으로 되였다. 전세계근로자들의 국제적명절을 맞는 이곳 광부들의 기세는 하늘을 찌를듯 높고 성과 또한 자랑할만 하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모든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필승의 신심과 혁명적락관을 가지고 당의 경제건설로선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을 과감하게 벌려나가야 합니다.》

올해초 인민생활대고조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펴올릴데 대한 당의 호소를 받아안은 광산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은 대고조진군길에서 다시한번 선군시대 로동계급의 혁명적기상을 높이 떨칠 불타는 열의로 가슴을 끓이였다. 일군들부터 잡도리를 든든히 하고 생산조직과 지휘를 짜고들었다.

어느날 무학분광산에 내려간 광산의 일군은 승리갱과 전진갱을 관통시키는 수직락광정을 건설할것을 발기하고 현장에서 기술협의회를 열었다.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는데서 락광정건설은 절실한 문제로 나섰던것이다. 협의회참가자들이 저저마다 타산을 해보았다. 락광정을 건설하면 조구통에 광석을 떨굴 때보다 매월 수천t의 광석예비를 얻을수 있었고 많은 연유도 절약할수 있었다. 그리하여 협의회에서는 락광정건설을 미룰수 없는 긴박한 문제로 보고 공사를 내밀기 위한 조직사업을 하게 되였다.

지하막장에서 수직락광정을 건설한다는것은 혈한 공사가 아니였다. 초보적으로 타산해본데 의하면 100m의 올리굴을 뚫어 락광정을 건설하는데 넉달이라는 기간이 걸려야 하였다. 그러나 분광산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은 넉달이 아니라 한달안에 건설을 끝낼 목표를 세우고 달라붙었다. 영웅광산의 로동계급답게 기적과 위훈만을 떨쳐야 한다는 각오로 충만된 이들이였다.

분광산의 로동계급은 착암기를 억세게 틀어잡고 공사를 다그쳤다. 광산의 책임일군들도 현장을 떠나지 않고 공사를 지휘하였다. 현장에서 로동자들과 숨결을 같이하며 지혜가 모자라면 기발한 착상과 과학적인 담보로 기술혁신의 싹을 틔워주고 지칠 때면 참신한 정치사업으로 새 힘을 북돋아주는 광산일군들의 모습을 보며 광부들은 신심드높이 공사를 다그쳐나갔다. 이들은 발파효률을 높일수 있는 합리적인 천공배치방법도 창안하여 승리의 돌파구를 열어나갔다. 그리하여 공사는 20일만에 완성되여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할수 있게 되였다.

광산에서는 북두분광산의 대형락광정배수처리계통도 새롭게 하였다. 수백m에 달하는 대형락광정배수공사는 과학기술적타산을 면밀히 세우고 해야 하는 어려운 공사였다. 광산의 일군들은 공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측량을 과학적으로 하기 위한 사업에 달라붙었다. 기술자들과의 진지한 협의를 진행하고 전문가들과 현지에서 토의도 거듭하면서 옳은 경사각도를 찾아나갔다. 이것은 그대로 승리의 지름길로 이어졌다.

일군들은 과학적인 측량에 기초하여 돌격구령을 내리였다. 북두갱 갱장을 비롯한 일군들과 광부들이 교대로 굴진작업에 진입하였다. 광산의 생산정상화가 이 공사에 달려있다는것을 잘 알고있는 이들은 혁명적열의에 넘쳐 시작부터 실적을 올리였다. 올리굴뚫기 과정에는 막아서는 난관이 한두가지가 아니였다. 그러나 광산의 생명선을 지켜선 높은 책임감을 안고 완강한 의지로 공격해나가는 이들의 필승의 기상은 꺾을수 없었다.

광산에서는 필요한 자재를 자체로 마련하여 굴진실적을 부쩍 높이였다. 이외에도 합리적인 천공배치방법을 비롯한 여러 작업방법을 실정에 맞게 받아들여 공사속도를 높여나갔다. 그리하여 일군들과 로동자들은 3년이 걸린다던 기존공식을 완전히 뒤집고 40여일만에 올리굴뚫기를 끝내는 기적을 창조하였다. 광산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은 이런 투쟁정신과 기풍으로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올해의 대진군길을 억세게 걸어가고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안겨주신 영웅광산의 칭호를 높은 광물생산성과로 빛내이리.

당이 결심하면 우리는 한다는 투철한 신념과 배짱을 안고 부강조국건설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선 이곳 광산의 로동계급은 오늘도 대고조진군의 발구름소리를 힘차게 울려가고있다.

본사기자 리철옥

현대화를 보다 높은 수준에서

평양곡산공장에서

평양곡산공장의 로동계급은 생산공정의 현대화를 보다 높은 수준에서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줄기차게 벌려온 긍지를 안고 5.1절을 맞이하고있다.

전세계근로자들의 국제적명절을 맞으며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어버이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의 손길아래 공장이 걸어온 자랑스러운 투쟁행로를 감회깊이 돌이켜보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현시대에는 과학기술이자 생산이고 생산이자 과학기술이라고 말할수 있습니다.》

평양곡산공장은 절세위인들의 불멸의 령도업적이 뜨겁게 깃들어있는 우리 나라 식료공업의 모체공장이다.

해방전 민족적멸시와 학대속에서 노예로동을 강요당하여온 이곳 로동계급은 어버이수령님의 은혜로운 손길아래 공장의 주인으로 되여 나라의 식료공업발전에 크게 이바지할수 있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어버이수령님과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어머님의 령도의 발자취가 어려있는 공장을 여러차례 찾아오시여 이곳 로동계급이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보람찬 투쟁에서 자기의 본분을 다해나가도록 크나큰 사랑과 믿음을 안겨주시였다.

공장의 로동계급은 영광의 일터에서 일하는 남다른 긍지를 가슴깊이 간직하고 위대한 장군님께서 현지지도하시면서 주신 과업을 한치의 드팀도 없이 최상의 수준에서 관철하기 위한 투쟁에 모든 지혜와 열정을 다 바쳐왔다.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효소생산공정, 효소물엿, 포도당생산공정, 밀페식강냉이농마생산공정 등의 현대화를 다그치기 위한 투쟁에 한사람같이 떨쳐나 전반적인 설비제작을 짧은 기간에 끝내는 성과를 거두었다.

하나의 새로운 공장을 일떠세우는것과 맞먹는 방대한 량의 현대적설비들을 제작하는 과정은 결코 순탄치 않았다. 하지만 이곳 기술자, 기능공들은 위대한 장군님의 믿음에 보답하려는 오직 하나의 생각으로 가슴 불태우며 부닥치는 애로와 난관을 극복해나갔다.

김정학, 백운철동무를 비롯한 공장의 일군들은 이신작칙의 모범으로 기술자, 기능공들을 설비제작을 위한 투쟁에로 불러일으켰다. 공장의 기술자들은 당과류생산공정의 CNC화를 실현하는 과정에 거둔 성과와 경험에 기초하여 최신과학기술성과들을 받아들인 현대적인 생산공정의 설계와 설비제작도면들을 자체로 완성하였다.

설비제작에 떨쳐나선 공무직장과 4.15기술혁신돌격대, 과자직장, 가공직장, 물엿직장의 기능공들과 기술자들도 높은 기술기능을 요구하는 설비들의 제작을 최상의 수준에서 완성하기 위하여 지혜와 열정을 아낌없이 바쳐왔다. 이들은 현대과학기술지식으로 튼튼히 무장하여야 발전된 설비들을 훌륭히 만들수 있다는 자각을 안고 설비제작의 짬시간마다 기술학습을 꾸준히 진행하여 모든 설비들을 손색없이 제작하였다.

공장당조직에서는 종업원들속에 당의 최첨단돌파사상을 깊이 심어주어 누구나 현대과학기술의 정복자가 되려는 열망을 안고 대중적기술혁신운동에 떨쳐나서도록 하였다.

설비제작의 나날에 과학기술이야말로 생산적앙양의 열쇠라는 진리를 다시금 심장깊이 새겨안은 공장의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기술공학적요구를 철저히 지키면서 설비조립전투를 힘있게 다그칠수 있었다.

본사기자 백산해

나라의 쌀독을 책임진 주인된 자각안고

룡천군 신암협동농장 일군들과 농장원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농업부문의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나라의 쌀독을 책임진 주인다운 자각을 가지고 식량증산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투쟁해나가야 합니다.》

어버이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의 불멸의 령도업적이 깃들어있는 룡천군 신암협동농장 일군들과 농장원들이 뜻깊은 올해의 5.1절을 크나큰 긍지와 자랑안고 맞이하고있다.

어찌 그렇지 않으랴.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내세워주신 본보기농장의 선구자들답게 올해농사에서 대혁신을 이룩하기 위한 투쟁으로 불같은 날과 달을 보내온 이들이다.

4월 중순전으로 논밭갈이를 끝낸데 이어 두벌농사면적을 제외한 기본면적의 벼모판씨뿌리기를 한주일전에 완료, 모내는기계수리정비를 원만히 끝내고 논두렁짓기와 모판관리를 비롯한 영농작업들을 주체농법의 요구대로 진행…

혈하게 마련된 성과가 아니였다. 힘겨울 때마다 이들의 눈앞에는 농장을 여러차례 찾아오시여 힘과 용기를 안겨주시던 경애하는 장군님의 자애로운 모습이 뜨겁게 어려왔다.

찾아오실 때마다 신암협동농장은 어버이수령님의 현지지도사적이 깃들어있는 농장인것만큼 농사를 잘 지어야 한다고 간곡하게 당부도 하시고 어느 해인가는 경쟁에서 진것때문에 죄송스러워하는 농장일군에게 바로 그래서 농장원들을 고무해주고 신심을 주기 위하여 자신께서 여기에 왔다고 뜨겁게 말씀하신 경애하는 장군님,

그 사랑, 그 믿음에 알곡증산으로 보답하려는 신암리사람들의 기세는 날이 갈수록 더욱 충천해졌다.

낮에는 씨뿌리기전투를 지휘하고 밤에는 교대운전수를 대신하여 밭갈이를 함으로써 작업반이 봄갈이를 제일먼저 끝내도록 한 제1작업반장 김영호동무를 비롯한 초급일군들과 성실한 뜨락또르운전수들의 헌신적노력에 의하여 밭갈이와 논갈이는 지난해보다 훨씬 앞당겨 끝났다.

며칠전 때아니게 진눈까비와 우박이 쏟아져내리던 날이였다.

이미 전날 저녁에 서리가 내릴수 있다는 기상예보를 받고 한사람같이 모판에 달려나와 밤을 새운 농장일군들과 농장원들은 긴장하게 2계단 씨뿌리기작업을 마무리하고있었다. 하늘가에 먹장구름이 밀려오고 비방울이 떨어지더니 점차 찬바람이 불어치고 대기온도가 급격히 떨어지면서 진눈까비와 우박까지 내리기 시작하였다. 즉시 비상대책이 세워졌다. 관리위원장 김영순동무를 비롯한 농장일군들은 작업반들을 하나씩 맡아 자연과의 투쟁에로 농장원들을 불러일으켰다. 모판들에 비닐박막을 씌우고 그우에 나래를 덮어 어린 모들을 보호하기 위한 치렬한 전투가 벌어졌다. 결사의 각오로 농업전선을 지켜가는 이들의 불타는 애국열의앞에 사나운 날씨도 점차 머리를 숙이고 물러갔다.

벼모들이 실하게 자라 펼쳐놓을 풍요한 가을을 그려보는 이들의 얼굴마다에는 긍지와 자랑이 한껏 어리여있었다.

전세계근로자들의 국제적명절인 5.1절을 뜻깊게 맞이하는 지금 이곳 일군들과 농장원들의 심장은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바라시는대로 올해농사를 잘 지어 나라쌀독을 가득 채울 결사의 각오로 더욱 불타고있다.

본사기자 김향란

수송계획을 1.5배이상으로

단천청년역에서

一매달 수송계획을 1.5배, 최고 2배이상 넘쳐 수행!

이것은 단천청년역에서 전해지는 혁신적인 새 소식이다.

김철로동계급의 편지에 호응하여 이곳 일군들과 수송전사들은 인민생활향상과 강성대국건설을 위한 올해의 총공격전에서 자랑찬 성과를 거두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수송부문에서는 우선 철도수송문제를 결정적으로 풀어야 합니다.》

단천철도분국 당위원회의 지도밑에 역초급당위원회에서는 자기 단위가 철도수송에서 차지하는 위치와 중요성을 대중속에 깊이 인식시키면서 그들을 새로운 위훈창조에로 불러일으키는 화선식정치사업을 참신하게 벌리고있다. 동해지구의 중요물동을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 더 많이 실어나르는데 적극 이바지하기 위하여 이곳 역의 당, 행정, 기술일군들은 일판을 통이 크게 벌리면서 대중을 수송전투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키고있다. 역사령원들은 함흥철도국 수송지휘처와 주재사령과의 긴밀한 련계밑에 수송조직과 지휘를 치밀하게 해나가고있다.

이곳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자력갱생의 정신으로 제기되는 문제들을 풀어나가면서 철도수송에서 계속 혁신을 일으키고있다.

어버이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의 불멸의 령도업적이 뜨겁게 어려있는 역에서 일하는 남다른 긍지와 자부심을 안고 화물작업반과 구내1, 2, 3작업반의 종업원들은 맡은 일을 책임적으로 해나가고있다.

짐을 싣고부리는 작업과 차갈이작업에서 날마다 혁신이 일어나고있다. 화물작업반원들은 기중기를 비롯한 설비관리를 깐지게 하여 짐을 싣고부리는 시간을 극력 줄이고있다. 최세규, 김명철, 리창수동무를 비롯한 사령장들이 작업조직을 잘하고있으며 구내1, 2, 3작업반원들이 차갈이작업에서 련일 혁신을 일으키고있다.

역의 운전지휘원, 조차원, 전철원, 련결원들은 기관차승무원들과의 밀접한 련계밑에 능숙한 일솜씨로 차갈이작업을 잘하여 편성된 화물렬차들을 제때에 떠나보내고있다.

특파기자 박동석

단상

본때

하나의 말에서도 시대의 정신을 뜨겁게 호흡하는 경우가 있다.

얼마전 우리가 흥남가스화대상건설장 소둔작업현장을 찾았을 때였다. 때마침 거기서는 마지막소둔공정을 거친 육중한 수소정제탑이 출구로 나오고있었다. 작업장 여기저기에서는 희열에 넘친 사람들의 목소리가 연방 튀여나왔다.

《〈미싸일〉이 또 한대 나온다. …》

순간 그 말이 비상한 의미로 나의 가슴을 두드렸다.

《미싸일》이라고 하면 그것은 국방공업부문이나 군사분야에서 쓰이는 말이다. 그런데 그와는 거리가 먼 건설장에서 그것도 평범한 로동자들의 입에서 스스럼없이 터져나오는것은 무엇때문인가.

이런 생각을 하는 나에게 동행한 일군은 이렇게 말하였다.

《제국주의자들의 비렬하고 악랄한 경제봉쇄책동에 우리는 자력갱생의 마치로 대답해나섰습니다. 그러니 저 수소정제탑을 우리 로동자들이 〈미싸일〉이라고 부르는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 그것은 흥남의 로동계급만이 아닌 온 나라 로동계급의 정신세계를 보여주는 말이였다. 조선에서 비료가 나오기를 바라지 않는자들, 우리가 잘살기를 원치 않는 제국주의자들의 거만한 코대를 보기 좋게 후려갈기며 조선은 결심하면 한다는것을 온 세상에 시위하는 선군조선로동계급의 자력갱생의 본때였다.

본사기자 최영길

로력혁신자들을 열렬히 축하! — 평양화력발전련합기업소에서— 본사기자 리명남 찍음

나무부산물로 질좋은 소비품을

121호림업련합기업소에서

121호림업련합기업소에서 나무부산물로 질좋은 소비품을 생산하고있다.

당위원회의 지도밑에 련합기업소에서는 통나무생산과정에 나오는 부산물과 산림을 개조하면서 나오는 용재가치가 적은 나무들을 효과적으로 리용하여 여러가지 소비품들과 가구제품을 많이 만들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내밀고있다. 박병관, 김영일동무를 비롯한 련합기업소일군들은 사업소들에 나가 나무부산물로 질좋은 소비품을 생산하는데서 나서는 기술적인 문제들에 대해 잘 알려주면서 생산자들을 적극 떠밀어주고있다. 일군들은 소비품전시회 및 품평회를 의의있게 조직하여 소비품생산이 대중자신의 사업으로 전환되도록 하고있다.

또한 사업소들에 8월3일인민소비품을 생산하는 작업반을 꾸리게 하고 생산자들에게 앞선 단위들에서 생산한 제품들을 보여주는 사업을 조직하여 그들의 시야를 넓혀주고있다.

사업소들마다 소비품생산으로 세차게 끓어번지고있다. 룡하림산사업소에서는 인민들의 기호에 맞는 새롭고 특색있는 갖가지 나무제품을 많이 생산하고있다. 상창림산사업소에서도 나무부산물로 특색있고 질좋은 인민소비품을 생산하고있다.

특파기자

농촌에 실지 도움이 되는 옳은 방법론을 찾아쥐자

와우도구역당위원회의 지도사업경험

와우도구역당위원회가 올해에 들어와 농촌사업에 대한 당적지도에서 훌륭한 본보기를 창조하고있다. 그 어떤 말이나 호소로가 아니라 구역안의 모든 농장들이 실지 덕을 볼수 있게 사업을 창조적으로 전개하고 헌신적으로 실천하는 구역당위원회일군들의 사업기풍은 매우 혁신적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농촌사업에 대한 당적지도를 강화하여야 합니다.》

이곳 구역당위원회사업에서 좋은 점은 우선 농촌을 도와주는 사업을 지난 시기와는 달리 새로운 방법론을 찾아쥐고 창조적으로 적용한것이다.

그것이 바로 구역당위원회가 올해에 들어와 기관, 기업소, 동들이 구역의 모든 농장의 작업반들을 직접 맡아 도와주도록 작전한것이다.

이 사업이 구역적인 사업으로 진행되게 된 계기가 있다.

지난 1월 구역당책임비서 홍순길동무는 구역안의 공장, 기업소들과 동, 인민반들의 농촌지원실태를 료해한적이 있었다. 농촌지원의 불길이 세차게 일고있다는것이 대뜸 알리였다. 포전들에 실어내간 도시거름과 소농기구의 수량이 그것을 말해주고있었다. 하지만 구역당책임일군의 얼굴색은 밝지 못하였다. 도시거름과 영농물자가 시내에서 가까운 농장들에 더 많이 집중되여있는 사실을 포착하게 되였던것이다.

물론 일부 단위들에서 여러가지 조건을 앞세우면서 운반조건이 불리한 농장들에 적극 진출하지 못한데도 원인이 있었지만 보다는 농사를 당적으로 지도해야 할 일군들이 넓은 안목을 가지고 조직사업을 빈틈없이 하지 못한데 중요한 원인이 있다고 책임일군은 생각하였다.

정확한 사업분담, 옳은 조직사업이 필요했다.

이와 관련하여 구역당위원회 비서 곽만석, 협동농장경영위원회 위원장 리히영동무를 비롯한 구역의 책임일군들은 사색을 기울이면서 진지한 토의를 거듭했다. 그 과정에 가장 리상적인 방법을 찾아냈다.

협동농장들을 대상으로 하던 지원사업으로부터 기본전투단위인 작업반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사업으로 전환시키자는것이였다. 말하자면 기관, 기업소, 동, 인민반을 비롯한 구역안의 모든 단위들이 협동농장들의 모든 작업반들을 도와주게 하는것이였다.

구역당위원회에서는 매 작업반의 농사조건과 위치를 잘 타산하여 그에 맞게 담당단위들을 선정하였다.

이렇게 되여 기관, 기업소, 공장, 동들이 구역안의 모든 농장의 작업반들을 직접 담당하여 도와주는 사업이 시작되게 되였다.

이 사업은 시작되자마자 그 생활력이 눈에 띄게 나타났다.

좋은 점은 한두가지가 아니였다.

구역안의 협동농장들의 모든 단위, 구석진 밭들에까지 도시거름과 영농물자가 골고루 가닿게 된것이다. 그 량과 질도 최상의 수준에서 보장되고있다. 그만큼 지원단위들의 경쟁심과 농사일을 끝까지 함께 책임지겠다는 일군들의 자각이 비상히 높아졌다는것을 말해주는것이다. 실지로 리성국, 리정남, 홍달호동무를 비롯한 구역급기관의 책임일군들과 한경식, 방창호, 윤영삼, 정시용동무를 비롯한 기관,기업소, 공장의 일군들 그리고 고영숙, 문영옥, 김정선동무를 비롯한 동일군들은 농업전선을 자기의 초소처럼 여기고 맡은 단위들을 물질적으로, 로력적으로 적극 지원하고있다.

농업생산과 관련하여 년초에 구역이 내세운 총적목표는 알곡 정보당 수확고를 비약적으로 높이는것이다. 이것은 어느 한두개의 포전이 아니라 전반적인 포전들에서 알곡이 증수될 때라야 실현될수 있는 목표이다. 이렇게 놓고볼 때 이와 같은 사업은 매우 실리적이였다. 바로 그 과정은 온 구역에 농사열풍을 안아온 힘있는 정치사업과정으로도 되였다.

구역당위원회사업에서 좋은 점은 다음으로 내부예비를 모조리 찾아내고 동원하여 농사일에 적극 리용하게 한것이다.

지금 구역당위원회를 비롯한 구역급기관들, 공장, 기업소들에 가보면 어디에서나 유휴자재수집통이라고 쓴 함들을 쉽게 찾아볼수 있다. 그안에 파비닐, 파지, 파고무들이 한가득 들어있다. 물론 함은 작아도 거기에는 농촌을 실질적으로 도와주려는 구역일군들의 마음이 소중히 비껴있다. 이것이 불씨가 되여 구역안에 내부예비탐구열풍을 안아왔다. 구역적으로 종합해보면 유휴자재량은 결코 적지 않다. 그것을 효과적으로 리용하여 비닐박막을 비롯한 영농자재들을 올해에 적지 않게 만들어냈다고 한다.

정철남, 리룡호동무를 비롯한 구역의 일군들에 의해 이런 사업은 깐지게 조직되고 실속있게 집행되고있다. 그리고 농장별로 중소농기구전시회도 여러차례 조직하였다. 이 하나의 사실만 놓고서도 구역당위원회 일군들이 농사에 총력을 집중시키기 위해 얼마나 피타게 노력하고있는가 하는것을 잘 알수 있다.

구역당위원회의 사업에서 주목되는 점은 또한 중요영농작업을 맡은 농장원들과의 사업을 잘한것이다.

뜨락또르운전수들과의 사업을 놓고보자.

봄철에 들어서면서 구역적으로 뜨락또르출동식을 진행한적이 있었다.

구역당위원회는 이 사업의 기본목적을 뜨락또르운전수들의 심장을 울리는 정치사업이 되도록 하는데 두고 실무일군들을 잘 이끌었다. 그리고 출동식이 끝난 후 뜨락또르운전수들에게 차례질 푸짐한 식사, 사출장화와 작업복, 비누 등 생활필수품들을 안겨주는 사업, 저녁에 집으로 돌아가는 그들에게 식료품을 들려주게 하는 사업 등을 잘 따라세웠다. 그리고 구역의 책임일군들이 농장벌들에 달려나가 뜨락또르운전수들에게 가정에서 성의껏 마련한 음식물도 안겨주고 함께 뜨락또르도 타면서 고무해주군 하였다. 그러니 영농전투에 떨쳐나선 뜨락또르운전수들의 사기가 왜 하늘에 닿지 않겠는가.

부림소관리공들과의 사업도 그렇다.

소강협동농장 제3작업반 2분조 부림소관리공 안성존동무는 지난 십여년동안 소관리공을 해오면서 매해 5마리의 소를 관리하고있다. 그 과정에 그는 십여마리의 소를 부림소로 훌륭히 키워냈으며 지금도 5마리의 소를 맡아 관리를 잘하고있다. 이 사실을 목격하면서 구역당책임일군이 받은 충격은 컸다.

아직은 영농사업에 필요한 원료나 자재가 넉넉하지 못하였다. 이런 조건에서 축력으로 농기계나 운수수단을 대신하도록 하는것이 매우 중요하였다. 그런데 며칠전 구역안의 협동농장들을 돌아보니 영양이 약한 부림소들이 있었던것이다.

시급한 대책이 필요하였다. 그 방도를 찾기 위해 그는 구역급기관의 일군들과 마주앉았다. 서로의 의견을 나누는 과정에 좋은 안들이 많이 나왔다. 그중에서도 책임일군의 제의는 모두의 공감을 불러일으켰다. 부림소관리공들에게 구역급기관의 일군들을 한명씩 붙여주자는 의견이였다. 이렇게 되여 모든 일군들이 부림소관리공이 되였다. 매 사람이 자기가 담당한 부림소관리공과 소관리도 함께 하고 책임도 함께 지게 되였던것이다. 그리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진행되는 부림소품평회와 총화, 평가사업에도 부림소관리공과 꼭같이 참가하게 하였다. 여기에서는 구역안의 책임일군들도 례외로 되지 않았다.

결과는 좋았다.

짧은 기간에 부림소들의 영양상태가 훨씬 좋아지기 시작했던것이다. 그만큼 구역급기관 일군들의 책임성과 역할이 높아졌다는것을 말해준다. 누가 지켜보는 사람이 없어도 일군들은 영양가가 높은 먹이들을 마련해가지고 매일과 같이 자기가 맡은 부림소에게 달려갔다. 그리고 짬짬이 시간을 내여 애지중지 관리도 하였다.

부림소들의 영양상태가 좋아질수록 높아진것은 농사실적이였다. 이렇듯 중요영농작업을 맡은 농장원들의 수준과 준비정도, 작업대상에 맞게 구역당위원회가 그들과의 사업을 실속있게 짜고든 결과 올해에 들어와 모든 영농공정이 지난해보다 훨씬 앞당겨지는 성과들이 이룩될수 있었다.

농촌사업에 대한 당적지도에서 구역당위원회가 특별히 힘을 넣은 문제가 있다. 모든 농사일을 과학화하고있는것이다. 구역적으로 부족되는 비료문제를 결정적으로 풀기 위한 사업이 진행되고있을 때의 일이다. 구역의 실정에서 이 문제는 시급히 해결해야 할 초미의 과제였다. 이와 관련하여 새로운 기술혁신안이 제기되였다. 알곡 정보당 수확고를 비약적으로 높일수 있는 방도의 하나를 이 과제수행에서 찾은 구역당위원회의 일군들은 기술자, 연구사들의 사업조건보장을 위해 자기들의 사무실도 선뜻 내주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밤을 패면서 기술적문제들을 풀어나갔다. 그리하여 짧은 기간에 이 기술혁신과제가 빛을 보게 되였으며 구역적으로 알곡을 증수할수 있는 확고한 전망이 열리게 되였다.

지난해 구역이 시적으로 농업생산의 본보기단위로 되고 목화농사에서도 통장훈을 부를수 있게 된것도 다 과학농사가 안받침되였기때문에 이룩될수 있은 성과였다.

구역당위원회사업에서 강조해야 할 좋은 점이 있다.

그것은 농업근로자들의 건강문제에 각별한 관심을 돌린것이다.

지난 4월 구역안의 협동농장들에 감동적인 화폭이 펼쳐졌다.

강력한 력량으로 무어진 구역의 의료집단이 협동벌로 달려나온것이다. 구강과, 안과, 내과 등 8개의 과로 구성된 현장치료대가 의약품은 물론 심전도측정기구, 초음파치료기구를 비롯한 현대적인 의료설비까지 가지고나와 농장들을 순회하면서 검진 및 치료활동을 성의껏 진행하였다. 모든 농장원들을 한사람, 한사람 빠짐없이 검진하고 치료해주었으며 입원치료를 받아야 할 대상들을 장악하여 해당한 대책까지 취해주었다.

이에 대한 농장원들의 반응은 대단히 좋았다. 누구나 우리 나라 사회주의보건제도의 고마움을 뜨겁게 느끼며 당면한 농사일에 더욱 극성스럽게 떨쳐나섰다. 이것은 또 하나의 힘있는 정치사업으로 되였다. 하지만 그들은 구역당책임일군에 의해 이 사업이 발기되였고 구역당위원회적인 사업으로 전환되여 진행되고있다는것을 미처 몰랐다.

농업생산의 직접적담당자는 농업근로자들이다. 그들의 흉벽을 어떻게 두드리는가에 따라 농업생산의 성패가 크게 좌우된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농업근로자들의 생활과 건강을 돌봐주는 사업을 정신력발동의 중요한 고리로 틀어쥐고나감으로써 그들의 심장을 울려 스스로 떨쳐나서게 하고있는 이곳 구역당위원회일군들의 사업은 참으로 혁신적인것이다.

모든 당조직들과 당일군들은 와우도구역당위원회 일군들처럼 부단히 사색하고 헌신적으로 투쟁함으로써 올해농사에서 결정적전환을 이룩하는데 적극 기여해야 할것이다.

본사기자 전경서

사회주의조국의 번영을 위하여 애국의 한마음 바쳐가는 크나큰 긍지

승리의 5월은 영원하리

천리마제강련합기업소 1강철직장 로동계급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김일성민족의 불굴의 정신력을 최대한으로 폭발시켜 강성대국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혁명적대고조의 열풍을 더욱 세차게 일으켜나가야 합니다.》

5. 1절을 빛나는 창조와 자랑찬 혁신으로 뜻깊게 맞이하는 선군조선의 미더운 로동계급속에는 천리마제강련합기업소 1강철직장의 용해공들도 있다.

충천하는 화광, 축하의 꽃보라인듯 천으로, 만으로 흩날리는 불보라, 기세좋게 쏟아지는 쇠물폭포…

철의 기지에 넘치는 혁신의 동음도 좋지만 방송선전차에서 울려나오는 《승리의 5월》의 노래소리에 목소리를 합치며 쇠물을 뿜는 용해공들의 불덩이처럼 달아오른 모습 또한 자랑스럽다.

장하고나 우리들은 힘찬 근로자
새 세기를 창조하는 승리의 주인
자유기발 휘날리며 나아가나니
온 세계를 진감하는 단결의 웨침
동무들아 이 기세로 굳게 뭉치여
인민경제계획을 승리로 맺자
…

또 한차지 뽑아낸 주홍빛쇠물을 기분좋게 바라보며 1강철직장 직장장 진영일동무는 이렇게 말했다.

《이 노래를 부르면 가슴이 후련해지고 힘이 솟습니다.

혁명의 수뇌부를 강철로 결사옹위해온 우리 강선의 승리의 력사가 이 노래와 더불어 흘러오지 않았습니까.

5. 1절기념 기업소종업원예술소조공연무대에도 우리는 이 노래를 가지고나가려고 합니다.》

그의 말을 되새기는 우리의 눈앞에 강선의 자랑스러운 력사가 흘러갔다.

민주의 새 나라를 건설하자면 강철이 있어야 한다고 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가르치심을 높이 받들고 일제가 패망하면서 파괴한 전기로를 2개월만에 되살려 첫 쇠물을 뽑았고 그처럼 간고하였던 전후복구건설시기에는 1만t의 강재만 더 있으면 나라가 허리를 펴겠다고 하신 수령님의 절절한 호소를 피끓는 심장에 받아안고 6만t능력의 분괴압연기에서 12만t의 강편을 밀어내는 기적을 창조한 수령결사옹위의 투사들,

새 조국건설의 첫 시기부터 오늘에 이르는 기간 자립적민족경제축성과 나라의 공업화를 실현하기 위한 사업에 거대한 공헌을 하며 어려울 때마다 강철로 당을 받들어온 강선의 로동계급의 자랑스러운 충실성의 전통을 변함없이 빛내여온 시대의 선구자들,

천리마의 고향인 강선이 끓어야 온 나라가 들끓고 강선의 로동계급이 소리치며 내달려야 전국의 로동계급의 발걸음이 더 빨라질수 있다고 하시면서 새로운 혁명적대고조의 봉화를 세차게 지펴주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뜨거운 호소를 받아안고 강선은 또 얼마나 들끓었던가.

밤을 모르고 비판을 모르고 만족을 모르며 쇠물처럼 심장을 끓여온 그들의 가슴속에서는 언제나 《승리의 5월》의 노래선률이 높이 울리고있었다.

어제날 위대한 수령님을 받드는 투쟁의 길에서 전세대가 불렀던 노래 《승리의 5월》을 오늘 경애하는 장군님의 선군령도따라 강성대국건설대전의 참전자들이 자랑스럽게, 우렁차게 부르고있는것이였다.

그렇다. 그들은 새 세기를 창조하는 영원한 승리의 주인공들이였다.

그것을 증명이라도 해주는듯 현장속보판에는 이런 제목의 속보들이 연방 나붙었다.

《교대없는 전투원이 되여》, 《하루 강철생산계획 넘쳐 수행》, 《남비보장은 념려말라》…

흐르는 땀을 닦으며 1호초고전력전기로 로장 지정호동무가 직장장 진영일동무에게 말했다.

《직장장동지, 이 기세로 노래련습도 합시다.》

《우리 1강철직장이 예술소조경연에서도 응당 1등을 해야 하구말구.》

용해공들은 쇠장대를 손에 쥔채로 다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그들이 부르는 노래소리가 전기로의 동음과 더불어 저녁노을이 곱게 비낀 강선의 하늘가로 울려갔다.

본사기자 장은영

더 많은 강철을 생산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고있다. 본사기자 찍음

위훈의 주인공, 시대의 영웅으로

선군의 내 조국에 또다시 5. 1절이 왔다.

영웅적로동계급을 비롯한 온 나라 근로자들은 위대한 당의 령도따라 강성대국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대혁신, 대비약을 일으켜나가고있는 긍지와 자랑을 안고 121번째의 전세계근로자들의 국제적명절을 뜻깊게 맞이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당과 수령은 인민을 믿고 끝없이 사랑하며 인민은 당과 수령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높이 받들어나가는 바로 이것이 우리의 일심단결의 참모습입니다.》

지금 우리 인민은 어버이수령님의 탄생 100돐이 되는 2012년에 강성대국의 대문을 기어이 열어제끼기 위한 전면공세, 전면돌파전을 드세차게 벌리고있다. 보람차고도 중대한 이 투쟁마당에서 조국청사에 아로새겨온 창조와 건설의 력사를 감회깊이 돌이켜보는 우리 근로자들의 기쁨과 행복, 긍지와 영광은 끝이 없다.

세상에 나라가 많고 근로자들이 많아도 우리의 로동자, 농민, 지식인들처럼 어머니조국의 영광스러운 승리의 력사와 더불어 5. 1절을 떳떳이 경축하는 례는 찾아보기 힘들것이다.

해마다 맞이하는 명절이지만 올해의 5. 1절을 맞는 선군조선의 근로자된 우리 인민의 긍지와 자부심은 남달리 크고 영웅적기상과 창조의 기백은 백배해지고있다.

선군조선의 근로자된 영광과 긍지, 그것은 어디서 꽃펴난것이던가.

얼마전 우리와 만난 성진제강련합기업소의 한 로력혁신자는 이렇게 격정을 터뜨렸다.

《우리 기업소를 찾으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우리들을 혁명의 준엄한 년대마다 철로당중앙을 결사옹위하고 자립적민족경제축성과 사회주의건설에 거대한 공헌을 함으로써 충실성의 전통을 창조한 성강의 영웅적로동계급이라고 불러주시면서 로력혁신자들과 함께 영광의 기념사진도 찍어주시였습니다.》

어찌 이들만이랴.

대고조의 선봉에서 기운차게 내달리고있는 김책제철련합기업소에 가보아도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경제강국건설의 전초병, 개척자라는 높은 자각을 안고 철생산을 부단히 늘이면서도 금속공업의 주체화, 현대화를 실현하는데 크게 기여한 기업소의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의 수고를 헤아려주시며 감사를 주신 그날의 이야기를 들을수 있고 룡성기계련합기업소의 로동계급을 만나보아도 새형의 기계제작을 위해 헌신분투한 이곳 일군들과 근로자들의 공로를 높이 평가해주신 장군님의 뜨거운 사랑과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수 있다.

4월 한달기간에만도 방방곡곡의 공장, 기업소들을 련이어 찾으시며 우리의 로동계급의 영웅적투쟁을 고무격려해주신 경애하는 장군님,

바로 위대한 장군님의 그 품속에서 우리 근로자들은 부강조국건설에 자기의 모든것을 다 바치며 보람찬 삶을 꽃피우고있다.

자본주의나라들에서 근로자들이 생활난에 허덕이고 수많은 사람들이 매일같이 실업자로 굴러떨어지고있을 때 사회주의 우리 조국에서는 근로자들이 위대한 령도자의 축복속에 창조와 로동의 보람찬 삶을 꽃피우고 위훈의 주인공으로, 시대의 영웅으로 그 모습을 빛내여나가고있는것이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은혜로운 사랑과 은정을 떠나 어찌 우리 근로자들의 긍지로운 삶과 행복을 생각할수 있으랴.

세대와 세대를 이어 혁명적본태를 변함없이 고수하고있는 우리의 로동계급이야말로 시대를 개척하고 변혁하는 위대한 선구자들이라고 하시면서 가장 혁명적이고 전투적이며 견결한 혁명의 전위부대인 영웅적로동계급이 있기에 우리 당이 강하고 우리의 사회주의조국은 필승불패이라고 뜨겁게 말씀하시는 우리 장군님,

어느해 5. 1절에는 천리마제강련합기업소와 황해제철련합기업소를 비롯한 금속공업부문의 로동계급을 몸소 평양에 부르시여 그들과 함께 공훈국가합창단의 공연과 축포야회도 보아주시고 성대한 경축연회도 차려주시며 힘과 용기를 북돋아주시던 경애하는 장군님의 그런 크나큰 믿음과 기대가 있어 로동계급을 비롯한 우리의 모든 근로자들은 일터마다에서 위훈의 자욱을 값높이 새겨가고있는것이다.

참으로 우리의 근로자들처럼 행복하고 긍지높은 근로자들이 이 세상 어디에 또 있으랴.

하기에 우리의 근로자들은 인민생활에서 결정적전환을 일으켜 온 나라에 사회주의만세소리, 강성부흥아리랑의 노래소리가 더 높이 울려퍼지게 하고 강성대국의 대문을 하루빨리 열어제끼려는 우리 당의 구상과 결심을 현실로 꽃피움으로써 자기들의 사명과 역할을 빛나게 수행해나갈 의지로 더욱 가슴을 끓이는것이다.

본사기자

류벌공의 영예

압록강변에 류벌공들의 랑만에 넘친 노래소리가 그칠새 없다.

푸른 물 굽이굽이 헤치고 넘어
떼목을 몰고몰아 우리는 가네
…

노래 《류벌공의 이 영예 끝이 없어라》는 압록강류벌사업소 류벌공들이 즐겨부르는 노래이다.

이 노래를 부르며 오늘도 이들은 압록강의 거세찬 물결을 헤치며 떼를 몰아가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혁명적랑만이 없이는 난관과 시련을 뚫고나갈수 없고 미래를 위하여 한몸바쳐 투쟁할수 없습니다.》

언제나 혁명적랑만에 넘쳐 용감하게 돌진하는 류벌공들의 강의한 정신력은 올해 압록강에 첫 떼를 띄우기 위한 준비과정에 더욱 높이 발휘되였다.

봄은 왔건만 물동주변에 여전히 많은 얼음이 남아있었다. 어느날 현장을 돌아본 압록강류벌사업소 지배인의 마음은 안타까왔다. 얼음이 풀리는 시기가 시작되여 강물이 불어나 물이 많아질 때 떼를 집중적으로 내려야 년간 물길에 의한 통나무마감나르기계획을 수행할수 있다는것을 잘 알고있는 그였다.

(얼음이 녹을 때까지 앉아서 기다릴수는 없다.)

단호한 결심을 안고 사업소마당에 들어서던 지배인은 초급당비서와 마주쳤다. 두 일군의 눈에서는 열정의 불꽃이 튕기고있었다.

《얼음을 모조리 까버립시다!》

《좋습니다. 한번 본때있게 해봅시다!》

다음날부터 얼음장들을 들부시는 함마와 곡괭이질소리가 쩡쩡 울리였다. 사업소의 종업원들은 물론 그 가족들도 떨쳐나섰다. 이들은 수백㎥의 얼음을 까내고 물동보수를 하여 마침내 떼를 띄울 물길을 열어놓고야말았다.

첫 떼가 내리던 날 앞선 떼가 센 바람에 밀리면서 암초에 걸렸다. 손을 잠간 잠그어도 뼈마디가 시린 차디찬 물속에 쇠바줄을 쥐고 서슴없이 뛰여드는 동무들이 있었다. 두번째 떼를 탄 동무들이였다. 서로 돕고 이끄는 집단주의정신으로 충만된 이들의 헌신적인 투쟁으로 첫 떼는 다시 유유히 흘러가기 시작하였다.

떼들이 련이어 목적지에 무사히 도착한 후 류벌공들은 봄빛이 넘치는 압록강변에서 유쾌한 휴식의 한때를 보내며 노래를 불렀다.

류벌공이 아니고서는 맛볼수 없는 그 영예를 가슴깊이 간직한 이들은 사회주의건설장들에 더 많은 통나무를 보내줄 애국의 열정안고 오늘도 떼를 몰아가고있다.

특파기자 전철주

◎ 과학과 기술로 조국을 받들며 ◎

지혜와 열정속에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지난 3월 평양남새과학연구소를 찾으시여 온실에서 푸르싱싱 자라고있는 먹음직스러운 오이, 도마도, 고추를 비롯한 열매남새들과 가두배추, 부루, 진채 등 잎남새들을 보시면서 못내 기뻐하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을 자기들의 일터에 모시였던 영광의 그날을 가슴깊이 간직하고 이곳 과학자, 기술자들은 인민생활에 이바지할 더 많은 연구성과를 이룩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있다. 이들은 인민들의 식생활과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는 각종 남새의 생산성과 영양가를 높이기 위한 높은 목표를 내세우고 서로의 창조적지혜를 합쳐가고있다. 최첨단을 돌파해나가는 담대한 탐구정신과 비상한 열정을 지니고 인민생활향상과 강성대국건설에 실질적으로 이바지하기 위한 연구사업을 꾸준하게 벌려나가고있는 이들의 좌우명은 자기 땅에 발을 붙이고 눈은 세계를 보라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숭고한 뜻이다.

그들은 지혜와 열정으로 아름다운 미래를 가꾸어가는 탐구의 길에서 보람과 긍지를 느끼며 선군조선의 근로자로서의 삶을 빛내여가고있다.

인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의학과학원 약학연구소의 연구사들은 인민들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연구사업에 지혜와 열정을 다 바쳐가고있다.

그들은 여러가지 고려약들의 엑스화, 규격화를 실현하기 위한 사업에서 성과를 이룩하고있다. 이들은 락솔주사약과 달맞이꽃씨기름무른교갑약, 뉴아민을 비롯한 효능높은 의약품들을 연구완성하고 강계고려약공장과 회령고려약공장을 비롯한 여러 고려약공장들과 제약공장들, 병원들에서 그러한 약들을 많이 생산하도록 적극 도와주고있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감사를 받아안는 영광을 지닌 리희숙, 김명심동무들이 이 사업의 앞장에 서있다.

고려약의 엑스화, 규격화를 실현하기 위한 연구사업에서 성과를 거두고있는 사람들속에는 정명철, 림광철, 장영걸, 박철순, 권률동무들을 비롯한 연구사들도 있다.

—당의 과학기술중시로선을 높이 받들고 어머니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해 지혜와 열정을 다 바치리!

이것이 최첨단을 돌파하기 위해 사색과 탐구의 날들을 이어가고있는 의학과학원 약학연구소 연구사들의 결심이고 의지이다.

건설장의 보배들

희천발전소건설장에 달려나간 2월17일과학자, 기술자돌격대에 망라된 김책공업종합대학의 교원, 연구사들은 언제와 물길굴건설에서 제기되는 수많은 과학기술적문제들을 해결하여 발전소건설을 앞당기는데 적극 이바지하고있다.

리원치동무를 비롯한 대학의 수십명의 교원, 연구사들은 강성대국건설의 최전선인 희천발전소건설이 가지는 의의와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2월17일과학자, 기술자돌격대에 망라되여 건설에서 제기되는 과학기술적문제들을 최첨단수준에서 해결하여 공사가 일정계획대로 추진되게 하고있다.

강좌장 장의준동무와 연구사 한현일동무를 비롯한 돌격대원들은 평양시려단, 평안북도려단, 황해북도려단을 비롯한 각 려단들에 나가 희천발전소를 만년대계의 기념비적창조물로 일떠세우기 위하여 창조적지혜와 힘을 합쳐가고있다.

현장에서 돌격대원들과 함께 일도 하면서 연구사업을 심화시켜나가는 그들을 두고 건설장의 이르는 곳마다에서는 우리 건설장에 없어서는 안될 귀중한 보배들이라고 칭찬을 아끼지 않고있다.

그들의 노력과 열정에 받들려 지금 희천발전소건설은 빠른 속도로 진척되고있다.

오은별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동상을 찾아

총련의 대표단, 방문단 경모의 정 표시

만수대언덕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동상을 찾아 4월 30일 재일본조선청년동맹일군대표단과 재일동포조국방문단이 경모의 정을 표시하였다.

대표단, 방문단성원들은 나라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 조국통일을 위하여 한평생을 바치신 경애하는 김일성대원수님에 대한 다함없는 흠모의 마음 담아 그이의 동상에 꽃다발들을 진정하고 인사를 드리였다.

【조선중앙통신】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에서 로므니아사회주의당대표단을 위하여 연회마련

【평양 4월 30일발 조선중앙통신】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에서는 우리 나라를 방문하고있는 로므니아사회주의당대표단을 위하여 4월 30일 평양고려호텔에서 연회를 마련하였다.

연회에는 바씰레 오를레아누 당최고리사회 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로므니아사회주의당대표단이 초대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 김영일동지와 리영철부부장을 비롯한 당중앙위원회 일군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연회에서는 김영일동지가 연설하였다.

그는 두 당이 오래전부터 반제, 자주, 사회주의의 리념밑에 굳게 련결되여있는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로므니아사회주의당이 광범한 근로대중의 리익을 옹호하고 진보세력들과의 단합을 위하여 노력하고있는데 대해 기쁘게 생각한다고 그는 말하였다.

우리는 로므니아사회주의당과의 친선을 귀중히 여기고 앞으로도 사회주의위업의 승리를 위한 길에서 언제나 함께 있을것이라고 그는 강조하였다.

다음으로 바씰레 오를레아누 위원장이 연설하였다.

그는 대표단을 환대해주고있는데 대하여 깊은 사의를 표한다고 하면서 이번 방문을 통하여 두 당사이의 관계가 더욱 깊어지리라는 확신을 표명하였다.

이 기회에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건강하시기를 축원한다고 그는 말하였다.

그는 조선인민의 정의의 위업을 적극 지지성원하며 강성대국건설에서 커다란 성과가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하였다.

연회참가자들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건강을 축원하여, 바씰레 오를레아누 당최고리사회 위원장의 건강을 위하여, 두 당사이의 친선협조관계의 강화발전을 위하여 잔을 들었다.

제26차 중앙과학기술축전 페막

【평양 4월 30일발 조선중앙통신】제26차 중앙과학기술축전이 페막되였다.

축전기간 참가자들은 당의 과학기술중시사상을 받들고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정보화를 다그치고 핵심기초기술을 비롯한 중요부문의 기술공학과 기초공학을 발전시키는데 이바지한 연구성과와 경험들을 서로 나누었다.

무연탄가스화에 의한 주체비료생산체계확립에 크게 기여한 가스발생공정의 분산조종체계, 대규모련속생산공정의 통합자동화체계, 련속조피방법에 의한 베아링강생산공정확립 등이 참가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페막식이 4월 30일 3대혁명전시관에서 진행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 최태복동지와 전하철내각부총리, 장철 국가과학원 원장, 김용진 교육위원회 위원장, 관계부문 일군들, 과학자, 기술자, 근로자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페막식에서는 종합심사결과가 발표되였다.

남흥청년화학련합기업소, 김책공업종합대학이 특등을, 국가과학원 생물공학분원, 삼일포특산물공장을 비롯한 8개 단위가 1등을, 2명이 특등, 37명이 1등을 쟁취하였다.

우수한 평가를 받은 단위와 참가자들에게 축전컵과 메달, 증서 등이 수여되였다.

조선과학기술총련맹 중앙위원회 위원장인 리자방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위원장이 페막사를 하였다.

연설자는 이번 축전이 비약적으로 발전하는 나라의 전반적과학기술의 위력을 시위하며 올해의 총공격전을 과학기술적으로 담보하는 중요한 계기로 된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과학자, 기술자들,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강한 민족적자존심과 자신만만한 배짱을 가지고 두뇌전, 기술전을 힘있게 벌려나가야 할것이라고 그는 말하였다.

그는 핵심기초기술과 최첨단과학기술분야를 획기적으로 발전시키며 과학기술축전의 생활력을 더욱 높이 발휘시켜 인민생활향상과 강성대국건설에 기여할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로므니아사회주의당 대표단 도착

【평양 4월 30일발 조선중앙통신】바씰레 오를레아누 당최고리사회 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로므니아사회주의당대표단이 4월 30일 평양에 도착하였다.

비행장에서 리영철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이 맞이하였다.

재일본조선인 의학협회대표단 도착

【평양 4월 30일발 조선중앙통신】제13차 국내외동포들의 평양의학과학토론회에 참가할 김영일회장을 단장으로 하는 재일본조선인의학협회대표단이 4월 30일 평양에 도착하였다.

비행장에서 김주영 조선의학협회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이 맞이하였다.

총련의 대표단, 방문단 도착

【평양 4월 30일발 조선중앙통신】사회주의조국을 방문하는 정희철 조선청년사 책임자를 단장으로 하는 재일본조선청년동맹일군대표단과 황운해 총련사이다마현상공회 회장을 단장으로 하는 재일동포조국방문단이 4월 30일 비행기로 평양에 도착하였다.

솔잎혹파리의 피해를 막자면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산림보호사업에서 병해충과의 투쟁을 강화하는것이 또한 중요합니다.》

온 나라를 수림화, 원림화하자면 산림조성사업을 잘하는것과 함께 이미 품을 들여 조성한 산림을 병해충의 피해로부터 보호하는 사업에도 큰 힘을 넣어야 한다.

솔잎혹파리는 송충과 같이 소나무에 피해를 주는 나쁜 벌레이다.

그러므로 소나무에 피해를 주는 솔잎혹파리의 생활습성을 잘 알고 제때에 잡아없애야 한다.

솔잎혹파리엄지의 몸길이는 암컷이 2~2.5㎜, 수컷은 1.5~1.9㎜, 날개의 길이는 암컷은 2.3㎜, 수컷은 2㎜정도이며 몸은 누런색 또는 누런밤색이다. 새끼벌레의 몸길이는 1.8~2.8㎜이며 다리가 없는것이 특징이다. 다 자란 새끼벌레는 보통 누런색이며 일부 흰색을 띠는것도 있다.

솔잎혹파리는 한해에 한번 생기는데 새끼벌레상태로 땅속에서 겨울을 난다.

암컷 한마리가 약 90개의 알을 낳는데 솔잎 한개에 6~11개의 알을 무더기로 낳는다.

알발육기간은 6~8일정도이며 알에서 까나온 새끼벌레는 솔잎밑에 벌레혹을 만들고 피해를 주는데 벌레혹에 들어있는 벌레수는 평균 4마리정도이다. 새끼벌레는 혹속에서 즙액을 빨아먹으면서 3령까지 자란다.

다 자란 새끼벌레는 10월중순까지 땅에 떨어져 겨울을 나는데 대부분(약 90%)은 4㎝깊이에서 겨울을 난다.

다음해 5월 중순부터 번데기로 되여 약 12일간 경과한 후 엄지벌레가 된다. 엄지벌레는 주로 바람에 의하여 이동된다. 자체로 날아오를수 있는 높이는 20~50m정도이다. 바람에 의한 이동거리는 약 4㎞정도이다.

솔잎혹파리가 침입한 솔잎은 정상적으로 자라지 못한다.

9월경에 벌레혹의 내부조직이 파괴되면서 벌레혹부분은 갈색으로 변한다.

10월말~11월에 피해받는 잎들은 황갈색으로 되며 심한 경우에는 소나무초리부분의 새 가지들이 말라죽는다.

피해는 5~7년동안에 최대로 커지는데 그 피해률은 지역마다 약간 다르지만 보통 30~80%정도이며 피해를 많이 받은 소나무는 죽고만다.

솔잎혹파리의 피해를 막자면 봄철에 새끼벌레가 번데기로 되기 전(5월중순경) 에 소나무수관밑부분에 흙을 덮어주어 엄지벌레로 되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 또한 마가을이나 초여름에 살충제를 리용하여 솔잎혹파리의 피해를 막을수 있다. 솔잎혹파리검은기생벌을 이동번식시키는 방법으로도 잡을수 있다. 이 기생벌의 자연기생률은 1.5~20.5%, 최고 25%정도이다. 천적들인 불개미와 거미류, 포식성새들인 박새, 딱따구리, 미생물인 백강균을 적용할수 있다.

박사 리소하

5월중 지자기현상

5월에 일기와 기타 지구물리학적요인에 따라 불리한 날들은 다음과 같다.

3일, 5일, 13일, 17일, 19일, 23일, 27일.

근로대중의 참된 삶이 꽃펴나는 인민의 락원

여기에 남조선의 한 로동자가 법정에서 웨친 신념의 목소리가 있다.

《김일성수령님과 김정일수령님은 위대한분들이시다! 그분들을 위해서라면 평생을 바칠 각오가 되여있다.》

《폭풍》이라는 필명으로 인터네트싸이트에 어버이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을 칭송하고 우리 공화국을 찬양하는 글을 여러차례 올린것으로 하여 체포된 그는 《김일성주석님과 김정일국방위원장님의 위대성을 칭송한것이 어떻게 죄로 되는가.》고 법관들에게 따지고들면서 앞으로도 위인들을 경모하고 공화국을 동경하는 글과 영상편집물들을 인터네트에 계속 올리려는 자기의 신념은 《강철같이 변함없다.》고 당당하게 웨쳤다. 어버이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의 위대성을 칭송하고 우리 사회주의체제를 찬양하는 그의 담한 모습앞에서 검사들은 질겁하여 《확고한 신념에 따라 공화국의 체제를 찬양하고 따르는 사람들이 계속 나오고있다.》고 비명을 질렀다.

이 충격적인 사실이 알려지자 남조선의 인터네트싸이트들에는 그의 용감하고 의로운 행동에 대한 찬사와 격려의 글들이 폭발적으로 실리였는데 기사투고자들은 한결같이 《북을 따르는 마음을 가지는것은 당연한것이고 진리》이라고 주장하였다.

하나의 물방울에 온 우주가 비낀다고 이 열렬한 격정의 토로들에 근로대중의 참된 삶이 꽃피는 행복의 락원을 마련해주신 절세의 위인들에 대한 남녘겨레의 한없는 흠모의 정이 그대로 비껴있는것이다.

남녘겨레들에게 있어서 공화국북반부는 꿈에도 안기고싶은 리상사회, 희망의 등대로 되고있다.

전세계근로자들의 명절인 5. 1절을 맞이한 남녘겨레들은 근로인민이 국가와 사회의 당당한 주인이 되여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마음껏 누리도록 해주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인민적정치를 격정에 넘쳐 찬양하고있다.

《차겁고 어두운 이 땅에 살고있는 이남민중을 포근히 안아주는 그 사랑, 그 해빛은 과연 어디에 있을가.

남녘겨레의 인생의 봄은 이북에서 오고있다.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참으로 민중을 위한 훌륭한 정치를 펴나가고계신다고 한다. 모든것을 민중을 위하여 복무하게 하고 민중을 위해서는 그 무엇도 아끼지 않으신다고 한다. 그분께서 펴시는 정치야말로 민중에게 영원한 봄을 주고 그늘없이 해빛만을 주는 위대한 사랑의 정치이다.》 서울의 어느 한 회사에서 일하는 로동자가 한 잡지에 투고한 이 글에도 근로인민을 위한 경애하는 장군님의 위대한 정치를 그리는 남녘의 민심이 뜨겁게 슴배여있다.

방송을 통해 공화국의 현실을 전해듣게 된 인천지역의 한 로조지부장은 동료들과 이런 말을 주고받았다.

《지금 이 땅에서는 우리 로동자들이 밑바닥인생취급을 당하지만 저 북에서는 로동자들이 나라의 주인이 되여 모두가 평등하게 잘살고있다고 한다. 이런 로동자천국을 가꾸어가시는분은 김일성주석님의 뜻을 이어가시는 김정일령도자님이시다. 그이께서는 우리 세상은 로동계급의 세상이라고 하시며 로동자들을 나라의 맏아들로 내세워주신다. 김정일령도자님께서는 언제나 근로인민들속에 들어가시여 국사를 의논하시고 그들의 생활을 따뜻이 보살펴주고계신다.》

그의 말을 듣고있던 한 로조원은 《이남정치는 로동자들을 천시하는 정치이지만 이북정치는 로동자들을 중시하는 정치이다. 김정일령수님의 품은 우리 이남민중이 다같이 안겨살 위대한 품이다.》라고 말하여 동료들을 격동시켰다. 이날 로조원들은 근로인민들을 제일로 아끼고 사랑하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자애로운 모습을 그려보며 경모의 눈물을 흘렸다고 한다.

어둠이 짙어갈수록 해빛이 그리운 법이다. 물질적부의 창조자이면서도 무권리와 빈궁속에 살아가는 남조선로동자들이기에 경애하는 장군님의 사랑의 품에 그토록 안기고싶어하는것이며 그이의 품에 안길 그날을 손꼽아 기다리는것 아니랴.

로동자들이 일하는 작업장에서, 실업자들로 붐비는 역기다림칸에서, 생존의 권리와 민주주의를 위한 투쟁의 거리를 비롯한 남녘의 가는 곳마다에서 경애하는 장군님에 대한 다함없는 칭송의 목소리가 끝없이 울려나오고있다.

《이북은 실업을 모르고 모든 사람들이 안정된 일자리에서 마음껏 일하며 행복을 누리는 민중의 세상이다. 나라가 어서빨리 통일되여 우리도 김정일장군님의 령도를 받으며 살았으면 원이 없겠다.》

《이북근로자들이 삶의 권리를 마음껏 향유하면서 보람있게 사는것은 김정일장군님께서 민중사랑의 정치를 펴시기때문이다. 우리 이남의 천대받고 억압받는 근로자들도 나라의 주인이 되여 뻐젓이 살자면 그분의 정치를 받아야 한다.》

《김정일장군님께서 령도하시는 이북은 로동자천국이다. 로동자들을 나라의 주인으로 내세워주시고 근심걱정을 모르고 살게 해주시는 김정일장군님의 정치를 하루빨리 받고싶다.》

남조선의 한 자유기고가는 《북을 향해 흐르는 민심의 대하》라는 제목의 글에서 이렇게 썼다.

《오늘 이남민중이 모든 악과 불행, 비극속에서도 힘과 용기를 잃지 않고 꿋꿋이 살아가는것은 민족의 운명이신 김정일령수님을 희망의 태양, 삶의 태양, 신념의 태양, 마음의 기둥으로 믿고 따르기때문임을 확신하였다. 어두운 이남땅에도 희망의 태양이 밝게 비치기에 우리는 어떤 역경속에서도 앞날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고난과 시련을 의욕과 용기로 극복타개해나가고있는것이다.》

그는 《민족의 운명을 맡길수 있는 곳으로 민심이 쏠리는것은 력사의 순리》라고 하면서 그것을 막을수 있는 힘은 세상에 없다고 강조하였다.

이것이 바로 남녘의 민심이다. 민심에는 언제나 진실만이 반영되는 법이다.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서 당당한 권리를 행사하며 행복한 삶을 누리려는것은 인민대중의 념원이다. 오늘 남녘겨레들은 그렇듯 간절한 념원을 희망으로만 간직하고있지 않다. 그들은 자기들의 소원을 풀고 참된 삶을 누리게 될 그날을 투쟁으로 앞당겨오고있다.

언제인가 서울의 한 장소에는 《정의구현로동자동지회》의 명의로 된 인쇄물이 수많이 뿌려졌었다. 인쇄물에는 《백두산의 아들 김정일령수님의 향도따라 천만로동자가 앞장서고 조국통일의 대문을 열어 민족중흥의 전기를 마련하자.》라는 글발이 씌여져있었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자애로운 품에 안겨살 통일의 그날을 마중해가는 남녘인민들의 대오는 날을 따라 더욱 백배해지고있다.

본사기자

근로인민을 위한 사랑의 정치

위대한 사랑과 믿음의 정치로 인민들이 사회의 주인으로서의 참된 삶을 꽃피워나가도록 이끌어주시는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에 대한 남녘겨레의 흠모의 정이 날로 뜨거워지고있다.

서울의 로동자 리영수는 다음과 같이 피력하였다.

북의 정치는 근로민중을 중시하는 정치이다.

북이 이 세상 으뜸가는 민중세상으로 되고있는것은 김일성주석님의 숭고한 뜻을 그대로 이어받으신 김정일장군님께서 그들을 위한 훌륭한 정치를 펴시기때문이다.

장군님께서는 사랑과 믿음으로 근로민중을 보살펴주신다.

그분께서는 근로민중이 일하는 곳이라면 그 어디에도 가보아야 한다고 하시며 온 나라 방방곡곡의 공장과 광산, 건설장들을 찾아 현지지도의 길을 이어가고계신다.

인천의 한 주민은 이북은 법을 만들어도, 사회적시책을 펴도 근로자들을 위한 법을 만들고 그들을 우선시하는 시책을 편다, 그래서 이북의 근로자들은 근심과 걱정을 모르고 복된 삶을 누리고있다, 김정일장군님께서는 로동자들을 굳게 믿으시고 그들을 위해서라면 아끼시는것이 없다고 한다, 정말 김정일장군님은 근로인민을 제일 사랑하시는 자애로운 어버이이시다고 격정에 넘쳐 말하였다.

서울의 한 로동자는 동료들에게 《우리가 사람대접을 받으며 살아가자면 김정일장군님께서 정사를 펴시는 이북과 같이 로동자, 농민이 나라의 주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평양방송을 들으니 이북에서는 로동자, 농민이 대의원으로 되고 그들이 선거권도 행사하고있다고 한다. 이 한가지 사실만 놓고보아도 이북이 얼마나 민주주의적인 국가이고 인민적인 나라인가 하는것을 잘 알수 있지 않는가. 이것이 다 민중을 하늘로 여기시며 그들을 나라의 역군으로, 정권의 주인으로 내세워주시는 김정일령수님의 민중사랑의 정치가 안아온 빛나는 결실이다.》

부산의 한 로동자는 김정일장군님은 이민위천을 좌우명으로 삼으시고 민족의 륭성번영과 민중의 복리를 위해 모든것을 바치시는 민족의 위대한 태양이시다, 극도의 정치적무권리에 신음하는 우리 로동자들에게 이북에서와 같이 로동자들이 주인된 행복한 생활을 마련해주실분은 오직 김정일장군님뿐이시다고 칭송하였다.

한 재야인사는 민중이 나라의 주인이 된 세상에서 조국의 미래와 후손만대의 행복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있는 사람들의 모습, 고난의 언덕을 넘어 강성대국건설의 령마루를 향해 힘차게 전진하는 이북민중의 모습은 그 하나하나가 행복의 꽃이요, 희망의 꽃송이라 이름할수 있다, 태양과 같으신 김정일장군님께서 베푸시는 따뜻한 사랑이 있어 이북의 민중화원은 그렇듯 만발한것이다고 격정을 터쳤다.

서울의 한 정치학전문가는 인터네트홈페지에 올린 글에서 김정일장군님께서 이끄시는 민중중시의 이북사회가 참으로 부럽다고 감탄을 금치 못해하였다.

위대한 태양의 품을 그리는 남녘의 민심을 담아 현대사연구원 장현일은 자기의 글에서 이렇게 썼다.

민중중시, 민중우선의 정치를 펴나가고계시는 김정일장군님을 민족의 령수로 모심으로 하여 우리 민족은 보다 희망찬 앞날을 확신하고있다.

장군님께서 펼쳐주시는 민중정치, 인덕정치가 이 땅에도 찬연한 현실로 꽃피게 될 그날을 우리 민중은 굳게 믿고있다.

로동운동가 리형규는 우리 이남의 로동자들이 민족의 령수를 받들어 하나로 굳게 뭉칠 때 통일의 마당은 커지고 통일의 대문이 활짝 열린다, 로동자들이 앞장서면 통일이 다가온다, 김정일장군님을 받들어 로동자들이 주인된 참세상을 안아오자고 소리높이 웨쳤다.

【조선중앙통신】

가장 공명정대한 통일대강

남조선인민들속에서 민족대단결5대방침을 제시하시고 온 겨레를 조국통일을 위한 거족적인 투쟁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키신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탁월한 령도를 격찬하는 목소리가 세차게 울려나오고있다.

남조선의 자유기고가 황만옥은 민족대단결의 휘황한 진로를 밝힌 강령적지침이 마련되던 력사의 그날을 되새기며 인터네트홈페지에 다음과 같은 글을 올렸다.

김정일국방위원장께서는 력사적인 남북조선 정당, 사회단체대표자련석회의 50돐기념 중앙연구토론회에 보내신 서한 《온 민족이 대단결하여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이룩하자》에서 조국통일운동을 비약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민족대단결5대방침을 제시하시였다.

이로써 우리 민족은 조국통일의 확고한 지침을 가지고 힘차게 전진할수 있게 되였다.

통일운동가 김수익은 《통일된 래일에 산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이렇게 썼다.

김정일장군님의 민족대단결5대방침은 그 하나하나가 애국, 애족, 애민의 숭고한 리념으로 일관되여있다.

여기서 특별히 감명을 받게 되는것은 집권상층이나 여당과 야당인사들, 대자본가, 군장성들도 민족공동의 리익을 귀중히 여기고 나라의 통일을 바란다면 그들과도 민족대단결의 기치밑에 단합할것이라는것을 명백히 선언한 그것이다.

실로 민족대단결5대방침은 민족의 구성원이라면 누구나 받아들일수 있고 즉시 실천에 옮길수 있는 애국애족의 명안이다.

지식인 김진수는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로작에서 민족자주의 원칙은 민족문제해결의 핵이며 전민족대단결의 기초의 기초라고 밝히시였다, 민족대단결5대방침은 통일의 전환적국면을 마련하기 위한 원칙적문제들을 제시한 가장 공명정대한 조국통일의 총서이며 겨레에게 밝은 전망을 안겨준 등대라고 말하였다.

태양회 회원들은 어느 한 모임에서 민족자주의 원칙을 견지하고 애국애족의 기치밑에 굳게 단결하며 온 민족이 서로 련대련합하여 조국통일을 이룩할데 대한 김정일령도자님의 민족대단결사상은 우리 겨레를 통일을 위한 투쟁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키는 위대한 통일대강이라고 격찬하였다.

한 대학교수는 토론회에서 우리 민족끼리의 리념을 밝혀준 6. 15공동선언의 정당성과 생활력에 대해 론증하고 이 선언은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그가 누구이건 어디에 살건 관계없이 과거를 백지화하고 단결, 협력하게 하시려는 김정일장군님의 위대한 민족대단결사상이 낳은 빛나는 결실이라고 주장하였다.

서울의 한 종교인은 태양을 중심으로 별들이 자리를 정하고 그 빛을 받아 만물이 성장하듯이 우리 겨레의 통일운동에도 구성이 있어야 한다, 그 구성이 바로 김정일령도자님이시라고 칭송하였다.

민주의 새세상을 세울것을 주장

남조선의 4월혁명회가 4. 19인민봉기 51돐에 즈음하여 4월 18일 서울에서 기념식을 가지였다.

기념식에서 발언자들은 4. 19봉기는 각계 민중이 독재《정권》의 불의에 맞서 자주, 민주, 통일을 위해 싸운 투쟁이였다고 말하였다.

그들은 지금 《한나라당》을 비롯한 보수패당이 파쑈독재를 부활시키고 민주화를 짓밟고있다고 규탄하였다.

4. 19의 넋이 부정당하는 오늘의 참상을 통해 현《정권》을 그대로 두고서는 자주, 민주, 통일을 이룩할수 없다는것을 통감하게 된다고 그들은 언명하였다.

그들은 보수세력을 심판하고 민주의 새세상을 세우는 일은 더이상 미룰수 없는 초미의 과제로 된다고 주장하였다.

이를 위해 진보세력이 단결하여 6. 15공동선언의 기치높이 힘차게 싸워나가자고 그들은 호소하였다.

선거패배로 커다란 위기에 빠진 보수집권세력

4월 27일 남조선의 《경향신문》이 이날에 진행된 보충선거에서 《한나라당》이 참패한데 대해 《전국적으로 반리명박정서 확인, 집권후반기 위기 본격화될 전망》이라는 제목으로 보도하였다.

신문은 《한나라당》이 전통적인 우세지역이라고 하던 경기도 성남시 분당을에서 야당에 패함으로써 집권세력이 최대의 위기에 빠졌다고 밝혔다.

이곳에서 여당의 패배는 곧 현 《정부》의 국정운영에 대한 민심의 심판이라고 신문은 주장하였다.

신문은 세종시건설, 《동남권신공항건설》계획백지화 등으로 충청도, 경상도의 민심이 돌아선데 이어 집권기반으로 되였던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지역의 민심마저 등을 돌렸다는것이 이번에 확증되였다고 밝혔다.

《한나라당》과 집권자사이의 거리도 점점 더 멀어질것으로 예상된다고 하면서 신문은 다음과 같이 계속하였다.

래년 총선거를 앞두고 리명박의 이름을 내걸고는 당선되기 쉽지 않다는것이 확인된것만큼 수도권지역 《국회》의원들이 리명박에게서 벗어나려는 기운이 높아갈수밖에 없다.

《동남권신공항건설》계획 백지화당시 《한나라당》내에서 울려나왔던 리명박탈당론이 다시 고개를 들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밀려올 파장을 인식하고 청와대는 침묵속의 고민에 빠졌다.

청와대에는 불안감이 감돌고있다.

【조선중앙통신】

반인민적정책의 산물

남조선사회가 근로대중의 명줄을 조이는 반인민적사회라는것은 이미 폭로될대로 되였다. 사회의 가는 곳마다에서 《죽을 지경이다.》는 아우성과 개탄, 비명소리가 련일 터져나오고있다. 오죽하면 남조선의 한 인터네트신문이 《하늘도 울고 땅도 울고 강도 울고 사람도 울고 짐승도 운다.》고 개탄하였겠는가.

《강부자정권》하에서 날이 갈수록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리는 남조선의 근로인민대중의 처지는 말이 아니다.

현 집권세력이 추진하고있는 재벌위주의 경제정책은 사회전반에 부익부, 빈익빈의 심화를 가져왔다. 자료에 의하면 《경제살리기》구호를 내들고 집권한 보수패당이 친재벌정책을 강행하면서 남조선에서 실업률이 8. 1%에서 13%로, 빈곤한 세대는 283만세대에서 305만세대로, 가계부채는 현재 6 427억US$로서 14. 9%로 늘어났는가 하면 중소기업의 51%가 파산에 직면하는 등 경제는 황폐화되여가고있다고 한다.

경제위기의 소용돌이속에 실업자들도 늘어나고있어 심각한 사회적물의를 일으키고있다. 알려진데 의하면 지난해 남조선청년들의 실지실업률은 20. 3%로서 공식적인 청년실업률 8. 6%의 근 3배에 달하였으며 나이에 따르는 실업자수중에서 20대와 30대의 비률이 급격히 증가하고있다고 한다.

보수패당이 집권하기 바쁘게 인민생활과 직접 련관된 50여개의 품목을 선정하고 물가를 낮출것이라고 흰소리쳤지만 오늘에 와서 그것은 오히려 90%, 110%이상 높아졌다. 이렇게 하늘높은줄 모르고 뛰여오르는 물가로 근로인민대중은 날이 갈수록 가난과 빚더미에 허덕이고있으며 리혼하는 현상, 어린 아이를 버리는 현상, 늙은 부모를 천대하는 현상 등이 극심하게 나타나 사회적물의를 일으키고있다. 지금 세대당 소득이 최저생활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빈곤한 로인부양세대는 남조선 전체 세대수의 3분의 1이상이라고 한다. 로인부양세대의 빈곤률은 35. 1%로서 이것은 전체 세대의 빈곤률보다 2. 5배나 높은것으로 된다.

뛰여오르는 세금과 물가로 하여 오륙이 성성한 사람들도 살아가기 힘든데 로동능력을 잃은 사람들의 경우야 더 말해 무엇하겠는가. 사실들은 인민들의 불행과 고통은 안중에도 없는 보수집권세력이 반인민적정치를 하는한 남조선인민들의 처지가 달라질수 없다는것을 다시금 보여주고있다.

본사기자 복은희

세차게 타번지는 항거의 불길

남조선당국의 반인민적악정에 항거하여 로동계가 들고일어나고있다.

지난 4월 21일 민주로총은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로동자들의 5월투쟁계획을 확정하였다. 그들은 임금인상, 《로조관계법》전면재개정 그리고 물가폭등과 민생파탄을 몰아온 현《정권》심판을 위한 집회를 서울을 비롯한 15개 지역에서 일제히 가질것이라고 밝히고 로동자들의 요구조건실현을 위한 투쟁을 강도높게 전개할 자기들의 의지를 표명하였다. 이보다 앞서 민주로총은 집회를 열고 임금인상을 위한 투쟁을 선포하였다. 단체는 집회에서 로동자들이 고되게 일하고도 생계조차 유지할수 없는 오늘의 현실을 더는 묵과할수 없어 투쟁에 나서게 되였다고 주장하면서 전체 로조원들이 굳게 뭉쳐 승리를 이룩할 때까지 보수당국의 로동악정을 반대하여 끝까지 싸워나갈것을 호소하였다. 민주로총은 충청북도 충주에서도 모임을 가지고 산하 모든 조직들이 로동기본권쟁취, 로동악법분쇄, 해고자복직, 임금인상을 위해 강력한 투쟁을 벌려나갈것을 호소하였다. 그에 따라 지금 민주로총과 각 산하로조들은 서울과 부산을 비롯한 남조선의 여러 지역에서 반《정부》집회들을 열고 당국의 반인민적정책의 부당성을 폭로규탄하고 로동악법의 철페를 요구하여 강력한 투쟁을 벌리고있다.

민주로총이 로동자들의 생존권과 민주주의를 요구하여 반《정부》투쟁을 힘차게 전개하고있는 가운데 각지에서 당국의 악정을 반대규탄하는 로동자들의 파업, 시위투쟁이 또한 격렬하게 벌어져 당국을 궁지에 몰아넣고있다.

전라북도지역의 로동자들이 《로동자도 인간이다. 우리도 인간답게 살고싶다!》, 《이대로는 못 참겠다. 살인〈정권〉 갈아엎자.》고 울분을 터뜨리며 생존권을 요구하여 전면파업투쟁에 돌입하였다.

남조선의 한진중공업 로조원들도 《구조조정》의 미명하에 로동자들을 부당하게 해고하는 당국의 행위에 맞서 파업을 멈추지 않고있다.

로동계의 강력한 투쟁은 온갖 반인민적악정으로 자기들의 삶을 송두리채 빼앗고있는 당국에 대한 원한과 분노의 폭발이며 투쟁으로 빼앗긴 로동의 권리와 생존권, 민주주의를 찾으려는 그들의 굳센 의지의 발현이다.

남조선보수당국은 집권초기 그 무슨 《땀흘려 일하는 사람들이 잘사는 사회를 만들겠다.》느니, 《서민들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느니 뭐니 하면서 근로인민대중을 위해 마치 큰일을 칠듯이 너스레를 떨었다. 그러나 보수당국은 집권후 시종일관 반로동자적인 정책만을 일삼으면서 남조선로동자들의 처지를 악화시킬대로 악화시켰다. 로동자들이 그토록 반대해나서는 《비정규직법》을 개악하고 미국식《시장만능주의》를 부르짖으며 공공부문의 민영화와 통폐합을 추진하여 실업사태를 더욱 악화시키고 로동자들의 임금을 삭감시킨것은 그 대표적실례이다. 지금 남조선에서는 당국의 비호와 조장으로 살 때를 만난 기업주들이 로임이 낮고 해고하기도 쉬우며 로조활동도 못하게 되여있는 비정규직을 늘이는데 경쟁적으로 매달리고있는 형편이라고 한다.

보수당국은 《경제위기극복》을 구실로 내세우며 이미전부터 존재하던 로조와 회사, 당국사이의 대화제도마저 무시해버리고 로조와 기업주들사이에 해마다 진행되여온 임금협상마저 2년이나 3년에 한번씩 진행하도록 하는 그야말로 로동자죽이기정책을 강행하였다.

그뿐이 아니다. 보수당국은 지난해에 로동자들의 생명보호를 위한 사업을 관리, 감독할 책임을 지방자치단체에 넘기기로 결정하였다. 물론 당국이 로동자들의 안전관련업무를 그대로 가지고있다 해도 기대할것이 못되지만 그래도 명색으로나마 있던 기능까지도 지방자치단체에 떠넘긴것을 보면 보수당국이 로동자들의 생명안전에 전혀 관심이 없다는것을 잘 알수 있다. 보수당국의 로동악정으로 하여 남조선에서는 산업재해로 한해에만도 무려 2 500여명이나 사망하고 4만여명이 불구자로 되였다고 한다. 500만명에 달하는 실업자대군과 800만여명에 달하는 비정규직근로자들, 날을 따라 늘어나는 방랑아들과 자살자들, 이 모든 비참한 현실은 보수당국의 반인민적정책이 빚어낸 필연적산물이다.

지금 로동자들의 반《정부》투쟁이 고조되는데 겁을 먹은 보수당국은 그들의 의로운 투쟁을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해 저지시키려고 발악하고있다. 하지만 그것은 터지는 강뚝을 가래삽으로 막아보려고 하는것만치나 어리석기 그지없는 짓이다.

거세찬 강물의 흐름을 막을수 없듯이 투쟁으로 자기들의 요구를 실현하려는 남조선인민들의 대중적진출은 그 무엇으로써도 가로막을수 없다.

남조선인민들은 자기들의 존엄과 권리를 위해 굴함없이 투쟁할것이며 그 길에서 반드시 승리를 안아올것이다.

본사기자 라설하

당국의 반인륜적만행을 규탄

조선과의 친선협회 영국지부, 영국주체사상연구소조, 영국선군정치연구협회가 조선서해해상에서 우리 주민들을 강제랍치하였던 남조선피뢰패당의 반인륜적만행을 규탄하여 4월 21일 공동성명을 발표하였다.

성명은 31명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민들을 강제랍치하고 그들중 일부를 송환하지 않은 남조선피뢰패당의 반인륜적만행을 준렬히 단죄한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이것은 혈육도 갈라놓는 천인공노할 만행으로서 국제법과 인권에 대한 란폭한 유린행위이다. 이번 사건은 남조선피뢰들이 반공화국심리전의 일환으로 조작한 서툰 모략극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일심단결에 기초한 사회제도이며 인민들이 온갖 사회적혜택을 마음껏 누리는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제도이다. 공화국에는 이런 조국을 버리고 남조선에《귀순》할 사람이 없다. 남조선피뢰패당은 비인간적인 모략책동을 당장 중지하여야 할것이다. 우리는 남조선피뢰들이 강제억류하고있는 나머지 4명의 주민들을 가족이 있는 공화국북반부로 돌려보낼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조선중앙통신】

남조선인민들 반대하여 투쟁하는 북침전쟁연습책동을

용납될수 없는 반민족적행위

《금강산관광중단으로 1 170여개의 기업들과 3만여명의 로동자들이 생계위협을 받고있다.》

이것은 남조선의 현대아산관계자가 금강산관광중단으로 기업의 운명이 경각에 이른것을 한탄하며 한 말이다. 단지 그 한사람만의 하소연이 아니다. 지금 남조선의 수많은 사람들이 금강산관광중단의 파국적후과에 대하여 개탄하고있다.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금강산관광은 단순한 산천구경이 아니다. 하나의 조국강토를 그리는 마음들이 뜨겁게 이어지던 잊지 못할 순간이였다. 예로부터 천하절승으로 이름높은 금강산, 산 좋고 물이 맑고 만가지 경치를 다 안고있어 하늘의 선녀들도 내렸다는 그 아름다운 명산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통일의 절절한 념원을 안고 달려왔던가. 활화산과도 같은 겨레의 통일열망으로 금강산은 끓어번지였고 그곳의 풀과 나무들조차도 통일에 대한 겨레의 희망에 떠받들리운듯 설레이였었다.

지난 1998년 11월부터 2008년 7월까지 근 10년간 금강산을 다녀간 남조선관광객수는 무려 3 550차에 192만 6 665명에 달한다고 한다. 그가운데는 남조선여야정치인, 청와대와 행정부 장, 차관을 비롯한 고위관리들도 있다. 이에 대해 남조선언론들은 《금강산관광이 남북사이의 긴장을 완화하고 남북관계를 개선하는데 크게 기여했다는 점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평하였다. 지어는 지난 시기 금강산관광에 대해 《대북퍼주기사업》이니 뭐니 하고 악랄하게 비방하던 《조선일보》까지도 《금강산관광이 남북화해와 협력분위기에 미친 영향을 부인할수 없다.》, 《내외적으로 남북화해와 교류의 상징처럼 되고있다는것이 솔직한 평가이다.》고 하였다.

이처럼 금강산관광은 북남교류의 대명사로, 화해와 협력의 상징으로 온 겨레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허나 기쁨과 희망, 통일의 노래소리 넘쳐나던 금강산이 지금은 어떻게 되였는가.

산정에 메아리치던 《반갑습니다》, 《다시 만납시다》의 노래소리는 가뭇없이 사라지고 감격적인 상봉과 력사적인 회합으로 끓어번지던 곳에는 무거운 적막이 드리우고있다. 그토록 금강산을 보고싶어하던 남녘겨레의 소망은 옛꿈으로 되돌아가고말았다.

그뿐이 아니다. 금강산관광중단으로 우리가 입은 직간접손실액은 무려 수천억원에 달하며 전망계획에 따르는 금강산개발사업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나라의 문화발전에 엄중한 지장을 주었다.

남조선의 기업들과 주민들이 입은 피해는 또 얼마인가. 지금 남조선의 많은 금강산관광관련 기업체관계자들은 경제활동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해 매해 수십억원의 손해를 보고있다고 하면서 《이대로는 살아남기 어렵다.》고 개탄하고있다. 실지로 금강산관광중단으로 현대가 본 피해액은 남조선돈으로 무려 4 800여억원에 달하며 금강산관광사업에 참가하였던 수많은 중소업체들이 무리로 녹아났다. 금강산으로 오가는 관광객들에 의거하여 생계를 유지하던 남조선강원도 고성주민들이 살길이 막막하여 정든 고향땅을 버리고 정처없이 떠나가고있으며 죽음의 길을 택하는 비참한 사태까지 초래되였다. 참으로 금강산관광중단이 준 피해는 너무도 크다.

하다면 이 파국적사태의 책임은 과연 누구에게 있는가.

금강산관광사업의 파국적사태는 남조선에서 반공화국대결정책을 추구해온 보수패당이 집권한 때부터 예고되여있었다. 금강산관광이 시작될 때부터 그것을 터무니없이 《퍼주기》라고 헐뜯으며 기를 쓰고 반대해온 이자들은 지난 2008년 권력의 자리에 들어앉게 되자 관광을 어떻게 하나 파탄시키기 위해 날뛰였다. 2008년 7월에 《관광객사건》이 일어나자 보수패당은 드디여 절호의 기회가 왔다고 환성을 지르며 금강산관광에 빗장을 질렀다. 이런 사태하에서 관광재개를 위한 우리의 적극적인 노력이 기울여지고 남조선 각계에서 관광재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가자 보수패당은 《진상규명》과 《신변안전보장》, 《재발방지》를 그 무슨 《3대조건》으로 내걸고 금강산관광재개를 의연히 가로막아섰다.

대결정책을 집요하게 추구해온 보수패당에게 있어서 《3대조건》이라는것은 순전히 남조선인민들속에 동족에 대한 불신과 증오감을 조장, 만연시켜 금강산관광을 깨버리고 북남관계를 완전파탄시키기 위한 한갖 구실에 불과한것이다. 금강산관광중단을 반공화국소동과 반통일정책실현의 한 고리로 삼는 보수집권세력의 악랄한 대결책동이 결국 금강산관광파탄이라는 엄중한 사태를 빚어낸것이다.

온 겨레의 관심과 기대가 어린 금강산관광을 파탄시킨 남조선당국의 반민족적인 범죄행위는 절대로 용납될수 없다. 하기에 금강산관광사업을 돌이킬수 없는 위기에 몰아넣은 보수집권세력에 대한 남조선각계와 인민의 원한과 분노는 하늘에 닿고있다.

조국통일범민족련합 남측본부는 반역패당을 준렬히 단죄규탄하는 성명에서 《금강산관광지역은 겨레의 땅이며 왕래의 권리와 자유가 있다. 그런데 일개 정당에 불과한 〈한나라당〉, 한줌도 안되는 집권세력이 그 길을 가로막는것은 있을수 없다. 더구나 금강산관광길은 민족의 숙원이자 영원해야 할 평화통일의 길이다. 임기 5년짜리 〈정권〉에다가 언제 급변사태를 당할지 모를 독재〈정권〉이 민족의 평화번영, 자주통일의 길을 막고있는것은 참으로 가당치 않은 일이다. 전체 민중들, 반드시 〈한나라당〉, 독재〈정권〉을 심판하고 다시 금강산관광길을 열자!》라고 호소하였다.

이 땅에 봄빛이 짙어가고있다. 아름다운 관광계절을 맞이한 남조선인민들의 마음이 그처럼 소망하던 금강산관광길을 막아버린 보수집권세력에 대한 분노로 끓고있는것은 당연하다.

이번 보충《선거》에서 《한나라당》세력이 참패한것도 그런 민심의 징벌인것이다.

본사기자 김향미

군민대단결은 선군조선의 불패의 힘의 원천

경축행사 진행

영웅적조선인민군창건 79돐에 즈음하여 꼴롬비아, 몽골, 말레이시아에서 집회, 토론회, 영화감상회가 4월 20일과 22일에 진행되였다. 행사들에는 꼴롬비아강계주체사상연구소조, 몽골 주체사상—선군사상연구협회, 국방과학연구소, 말레이시아 엠씨엠씨회사, 전진무역회사의 인사들과 군중이 참가하였다. 영화감상회들에서는 《백두산총대로 빛나는 조국》을 비롯한 우리 나라 영화들이 상영되였다.

꼴롬비아강계주체사상연구소조 위원장 하이로 곤쌀레스 뜨루힐요는 집회에서 한 연설에서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김정일령도자께서는 선군정치를 사회주의기본정치방식으로 확립하시였다. 그이께서는 군대의 정치사상적준비에 선차적인 관심을 돌리시였다.

조선인민군은 경제건설에서도 위력한 력량으로 되고있다.

정치, 경제, 문화의 모든 면에서 사회의 선도자로 되고있는 조선인민군이 있어 조선의 사회주의는 필승불패이다.

몽골 주체사상—선군사상연구협회 위원장 브. 다와도르쥐를 비롯한 토론자들은 우리 군대와 인민이 강성대국건설에서 세인을 놀래우는 기적을 창조하고있는데 대하여, 선군조선의 불패의 힘의 원천인 군민대단결에 대하여 상세히 언급하였다.

말레이시아 엠씨엠씨회사 사장 만소는 영화를 보고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조선반도에서 새 전쟁이 일어나지 않고있는 리유는 바로 조선의 군력이 막강하기때문이다. 조선인민군창건 79돐을 맞는 조선인민에게 열렬한 축하를 보낸다.

기념특집

영웅적조선인민군창건 79돐에 즈음하여 여러 나라 신문, 방송이 특집하고 기념보도를 하였다.

이란신문 《카이한 인터내슈널》 4월 21일부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환호하는 열병대오에 답례를 보내시는 사진을 모시고 《조선인민군창건 79돐을 맞으며》라는 표제밑에 옹근 한면 특집하였다.

신문은 《희세의 령장 김정일장군과 강군》 등 제목의 글들에서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선군정치를 사회주의기본정치방식으로 정립하시였으며 조선인민군을 사회주의위업수행의 기둥, 주력군으로 내세우신데 대하여 서술하였다. 신문은 조선에서 최고사령관과 군인들사이의 관계는 사상과 뜻, 정을 같이하는 혁명동지의 관계이다, 이런 군대를 당할 힘은 세상에 없을것이다고 지적하였다.

김정일최고사령관의 령도밑에 조선인민군은 사회주의의 투철한 신봉자, 믿음직한 수호자로 자라났다고 하면서 신문은 모든 면에서 사회의 선도자로 되고있는 조선인민군이 있어 조선의 사회주의는 필승불패이라고 강조하였다.

신문은 조선인민군 열병대오 사진들을 함께 편집하였다.

에짚트신문 《알 마싸이야》 4월 21일부는 《불패의 조선인민군》이라는 제목으로 다음과 같은 글을 게재하였다.

국제사회에서 무적의 강군으로 알려져있는 조선인민군은 특출한 지도사상과 전법으로 무장하고있다. 조선인민군의 창건자이시며 전설적령장이신 김일성주석께서는 주체의 군사사상을 제시하시였다. 이 사상은 종래의 무기중심론과는 달리 사람중심, 군인대중중심의 사상이다. 다시말하여 군인대중을 가장 힘있는 존재로, 전쟁승리의 결정적요인으로 내세우며 자기 힘을 믿고 싸우면 그 어떤 강적도 반드시 이긴다는 독창적인 사상이다.

김정일최고사령관께서는 인민군군인들을 주체의 군사사상으로 철저히 무장시켜 사상의 강자, 신념의 강자들로 준비시키시였다.

4월 19일 캄보쟈의 에프엠 90.5방송은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조선인민군의 불패성의 원천은 특출한 지도사상과 전법뿐아니라 세계 그 어느 나라 군대도 따를수 없는 정치사상적위력을 갖춘데 있다. 수령결사옹위정신을 기본핵으로 하는 혁명적군인정신이 전군에 차넘치고 최고사령관의 명령일하에 전군이 하나와 같이 움직이는 령군체계가 정연히 수립되여있다.

조선인민군의 불패성의 원천은 또한 군민대단결과 무진막강한 군사기술적위력에 있다.

군민일치는 조선의 전통적미풍이다. 조선의 국력은 강력한 자위적국방공업에 토대하고있다. 온 사회에 군사중시기풍이 세워져있고 군대의 전투력강화에 나라의 모든 힘이 집중되고있다. 조선인민군은 공격과 방어에 다 준비되여있으며 현대전에 능히 대처할수 있는 막강한 군사기술적수단들과 믿음직한 핵억제력까지 보유하였다. 김정일최고사령관을 높이 모신 조선인민군은 불패의 강군으로서의 위용을 길이 떨쳐갈것이다.

한편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으로 높이 추대되신 18돐에 즈음하여 네팔신문 《머저두르》 4월 12일부가 경애하는 장군님의 선군령도업적을 칭송하는 글을 특집하였다.

불레찐 발행

영웅적조선인민군창건 79돐에 즈음하여 브라질조선친선협회에서 4월 22일 기념불레찐을 발행하였다. 불레찐은 《선군의 기치따라 백승을 떨쳐온 조선인민군》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조선인민군이 걸어온 근 80년간의 나날은 탁월한 선군령장들의 령도밑에 백승을 떨쳐온 강군의 력사로 빛나고있다.

강력한 군대는 민족의 자주적존엄의 상징이며 국가와 인민의 불패성의 기치이다.

자체의 힘으로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개척해나가자면 강력한 군대를 가져야 한다.

김일성주석의 혁명력사는 군대를 먼저 창건하고 강력한 군력에 의거하여 혁명을 이끄신 선군혁명령도사이다.

불레찐은 조선의 혁명적무장력이 일제와 미제를 타승하고 혁명의 강력한 기둥으로 장성강화된것은 김일성주석의 군사중시로선의 빛나는 결실이라고 강조하고 다음과 같이 계속하였다. 김일성주석의 군령도사는 김정일최고사령관에 의하여 빛나게 이어지고있다.

김정일최고사령관께서는 선군정치를 사회주의기본정치방식으로 확립하시고 끊임없는 선군장정의 길을 이어가신다.

인민군대를 본보기로 하여 혁명의 주체를 비상히 강화하고 미국의 침략위협을 제압분쇄할수 있는 군사력을 튼튼히 다지도록 하는 김정일최고사령관의 령도는 조선의 국력이 최상의 높이에서 떨쳐지게 하는 근본원천이다. 조선인민군은 선군정치밑에 정치사상적으로, 군사기술적으로 완벽하게 준비되여 혁명의 강력한 주력군으로서의 위용을 높이 떨치고있다.

인민군대의 선봉적역할에 의하여 조선의 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에서는 새로운 혁명적대고조의 력사가 창조되고있다.

선군의 기치따라 백승을 떨쳐온 조선인민군에 영광이 있으라!

【조선중앙통신】

보람찬 삶을 누리는 조선의 근로자들

국제사회계의 반향

국제사회계는 당과 국가의 보살핌속에 참된 삶을 누리며 강성대국건설대전의 참전자로서의 영예를 한껏 떨쳐가는 선군조선의 근로자들에 대한 부러움을 금치 못하고있다.

기네조선친선협회 위원장은 조선에서는 모든 근로자들이 사회의 평등한 성원으로서 동등한 자유와 권리를 가지고 서로 돕고 이끌면서 살아가고있다고 격찬하였다.

아시아축구련맹의 한 성원은 조선의 현실은 서방의 출판보도물들이 떠드는것과는 전혀 다르다, 자본주의나라들에서는 근로자들의 생존권이 무참히 짓밟히고있다, 그러나 조선에서는 근로대중의 리익을 첫자리에 놓고 그를 위해서라면 그 무엇도 아끼지 않고있다고 말하였다.

에꽈도르 볼룬따드 출판사 불레찐은 조선에서는 공장을 하나 건설해도 거기에서 일하게 될 로동자들을 먼저 생각하고 작업장을 꾸려도 로동자들의 마음에 드는가 안드는가부터 고려하고있다, 김정일령도자의 근로자들에 대한 믿음과 사랑, 그에 보답하려는 그들의 각오는 조선에서 령도자와 인민사이의 단결의 요인으로 되고있다고 전하였다.

로므니아신문 《뜨리뿔로룰》은 평범한 근로자들이 대의원으로 선거되고있는 조선에서는 인민대중이 생산수단의 주인으로서 로동의 권리를 충분히 보장받고 창조적인 로동생활을 마음껏 누리고있다고 보도하였다.

체스꼬주체사상연구 및 구현소조와 백두산체스꼬조선친선협회는 인터네트에 올린 글에서 선군시대에 와서 조선의 근로자들은 김정일동지의 령도밑에 자기의 혁명성과 전투력을 더 높이 발휘하며 긍지높은 삶을 빛내여가고있다고 지적하였다.

네팔신문 《노야 꼬뜨빠르와》는 전세계근로자들의 국제적명절인 5.1절이 오면 조선의 근로자들은 다른 나라에서처럼 생존권보장을 위한 파업이나 시위가 아니라 다채로운 경축행사들로 즐거운 하루를 보내군 한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2009년 조선에서 5.1절경축 축포야회와 연회가 진행된것은 이날을 전례없이 희한하고 의의있는 근로자들의 명절로 되게 해주시려는 김정일령도자의 깊은 관심에 의하여 마련된것이였다.

세상에는 인민을 위한다는 정치가도 많고 연회에 대한 일화도 적지 않지만 1만 5 000명이나 되는 평범한 로동자들을 위하여 성대한 국가연회가 마련된 사실은 력사에 있어본적이 없다.

동유럽 및 중앙아시아지역 주체사상과 선군정치연구협회 국제련합은 인터네트에 다음과 같은 글을 올렸다.

근로자들에 대한 김정일령도자의 사랑의 세계는 조선의 방방곡곡에서 수많은 전설을 낳고있다.

어느해 6월 검덕의 광부들을 찾으신 김정일령도자께서는 강성대국건설에 이바지할 일념을 안고 광석생산을 위해 애쓰는 그들의 수고를 헤아리시고 안해들과 함께 평양견학을 하도록 특별초청해주시였다.

그이께서 현지지도의 길에서 평범한 근로자들에게 안겨주시는 사랑과 믿음은 그대로 강성대국건설의 승리를 앞당기는 추동력으로 되고있다.

말따신문 《오리죤트》는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김정일각하께서는 공장, 기업소를 찾으실 때마다 생산실적이나 경영실태뿐아니라 근로자들의 생활조건, 로동조건에도 깊은 관심을 돌리신다.

그이께 있어서 작업장의 온습도며 로동자, 농민들의 먹는 물, 땔감 등 근로자들의 생활과 관련하여서는 관심하시지 않는 문제가 없다.

자기들을 위하여 이처럼 헌신하시는 령도자를 따르고 받들지 않을 인민이 어디에 있겠는가.

【조선중앙통신】

만민의 심장속에 영생하시는분

태양절에 즈음하여 여러 나라 신문이 특집하고 기념글을 게재하였다.

짐바브웨신문 《헤랄드》 4월 16일부와 에꽈도르신문 《뜨리부나》 17일부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태양상을 모시고 특집하였다.

신문들은 글에서 세계 진보적인류가 주체사상의 창시자이신 경애하는 수령님을 위대한 스승으로, 영원한 태양으로 열렬히 칭송하고있는데 대하여 사실자료들을 들어 소개하고 김일성주석께서는 조선혁명뿐아니라 세계자주화위업에 불멸의 업적을 쌓아올리신것으로 하여 만민의 심장속에 영생하신다고 강조하였다.

김일성주석의 생전의 념원은 김정일령도자에 의하여 오늘날 현실로 꽃펴나고있다고 하면서 신문들은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인민이 세상에 부럼없이 살게 될 강성대국건설구상을 펼치시고 그를 위해 모든것을 다 바치고계시는데 대하여 서술하였다.

파키스탄신문 《발루치스탄 타임스》 4월 17일부는 《김일성주석의 선견지명과 사회주의조선》이라는 제목의 글을 실었다. 신문은 글에서 세기를 이어가며 승승장구하고있는 사회주의조선의 현실은 일찌기 자주, 자립, 자위의 로선을 제시하시고 일관하게 견지해오신 김일성주석의 선견지명의 응당한 결실이라고 지적하였다.

수리아신문 《알 바아스》 4월 15일부는 자주, 자립, 자위를 자주독립국가건설의 근본원칙으로 규정하고 이를 일관하게 견지하시였으며 인민의 요구와 의사를 그대로 정치에 구현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령도의 현명성을 찬양하는 글을 편집하였다.

중국의 《흑룡강신문》 4월 15일부도 우리 인민과 세계 진보적인민들이 태양절을 인류공동의 명절로 뜻깊게 기념하고있는 소식을 상세히 전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일본의 그릇된 주장을 배격

중국국방부 보도대변인이 4월 27일 기자회견에서 자기 나라에 대한 일본의 그릇된 주장을 단호히 배격하였다.

그는 중국이 평화적발전의 길을 견지하고 방위적인 국방정책을 실시하고있는 객관적사실을 일본측이 무시하고 《중국의 군사적위협》을 과장하고있는데 대해 자기 나라는 견결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중국의 《섬—20》스텔스전투기의 시험비행과 관련하여 그는 중국군대의 무장장비개발은 그 어느 나라와 특정한 목표를 겨냥한것이 아니라고 하면서 외부세계가 중국의 무장장비시험에 대해 지나친 추측과 해석을 삼가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단결의 위력을 과시할데 대해 호소

꾸바근로자중앙이 최근 호소문을 발표하여 전세계근로자들의 국제적명절 5.1절에 즈음하여 모든 근로자들이 단결의 위력을 과시할데 대해 강조하였다.

호소문은 꾸바의 근로자들은 자기들이 제국주의의 항시적인 침략책동에 맞서 나라의 자주권과 독립을 수호하여온데 대해 커다란 긍지를 느끼고있다고 하면서 이번 5.1절기념 군중시위를 통하여 근로자들은 당의 두리에 굳게 뭉친 꾸바인민의 모습을 전세계에 보여주어야 한다고 밝혔다.

호소문은 또한 근로자들이 목소리를 합쳐 미국의 감옥에 부당하게 감금되여있는 5명의 꾸바애국자석방을 요구하며 국제테로분자 뽀싸다 까릴레스에게 무죄를 선고한 미국의 처사를 규탄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본사기자

자주적인 삶을 위하여

국경지역의 사회경제발전을 다그칠데 대해 강조

먄마대통령 테인 세인이 4월 24일 한 회의에서 국경지역의 사회경제발전을 다그칠데 대해 강조하였다. 그는 특히 정부가 국경지역의 경제, 교육, 보건, 운수 등 여러 부문의 사업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하였다. 그는 이 지역주민들이 외세의존사상을 버리고 자기 조국과 마을을 귀중히 여기는 마음을 간직하여야 하며 평화와 안정, 발전을 이룩하기 위한 국가의 정책을 적극 실현해나가야 한다고 언명하였다.

군대인재양성사업 강화조치

중국중앙군사위원회가 최근 《2020년전까지의 군대인재발전계획요강》을 인쇄발행하였다. 요강은 앞으로 일정한 기간 인재양성사업에서 나서는 요구를 명확히 밝힌것으로서 새로운 출발점에서 군대인재대오건설의 과학적발전을 추진하기 위한 강령적문건으로 된다고 한다.

전투력강화노력

— 로씨야무력이 최근 군부대들의 전투력을 강화하기 위한 훈련에 힘을 넣고있다.

얼마전 흑해함대의 반잠함 및 미싸일함부대들과 미싸일정 및 소형미싸일정전대들이 전술훈련을 진행하였다. 훈련을 통해 부대들은 해상과 공중, 해안목표들에 대한 포사격 및 미싸일공격능력을 련마하였다.

공군의 전략항공대도 40여대의 각종 비행기들을 동원하여 지휘참모훈련을 벌리였다.

한편 반항공부대들은 아스뜨라한주의 한 사격장에서 진행한 훈련과정에 가상적의 집중적인 미싸일타격과 비행대의 공격을 격퇴할데 대한 임무를 성과적으로 수행하였다.

— 로씨야에서 최근 《아르마다》라고 하는 신형땅크를 개발할것을 계획하고 이 사업을 적극 추진시키고있다.

신형자동장치로 장비되는 이 땅크는 서지 않고 이동하면서 사격할수 있으며 새 탄약을 사용하게 된다고 한다. 새로운 땅크는 2015년부터 배비될것이라고 4월 28일 로씨야국방성 관계자가 밝혔다.

정착촌확장책동 규탄

팔레스티나해방조직 집행위원회 위원 사에브 에레카트가 4월 27일 한 방송과의 회견에서 이스라엘의 유태인정착촌확장책동을 규탄하였다.

이스라엘당국이 동부꾸드스에 386채의 새로운 유태인살림집을 건설할것을 계획하고있는것과 관련하여 그는 그것이 평화과정재개의 모든 가능성을 파괴하는것으로 된다고 단죄하였다.

그는 그와 같은 부당한 계획을 당장 철회하도록 이스라엘당국에 압력을 가할것을 국제공동체에 호소하였다.

반미시위

이라크의 바그다드와 모쑬시에서 4월 23일과 24일 미군의 장기주둔책동을 반대하는 시위가 벌어졌다.

최근 미합동참모본부 의장이 이라크당국에 미군주둔기한연기를 요구한것과 관련하여 일어난 시위에는 수천명의 이라크인들이 참가하였다.

그들은 미국기발을 불태우고 반미구호들을 웨치면서 올해말까지 이라크주둔 미군을 완전히 철수시킬것을 미행정부에 강력히 요구하였다.

【조선중앙통신】

미국에서 반전시위

심각한 실업문제

— 미국에서 계속되는 경제침체로 실업문제가 의연 심각하게 제기되고있다.

4월 21일 미로동성은 조사자료를 인용하여 4월 16일까지의 지난 한주일동안에 전국적으로 새로 등록된 실업자수가 40만 3 000명에 달하였다고 밝혔다.

— 뽈스까에서 올해 3월에 실업자수가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2.8% 증대되여 213만명에 달하였다.

4월 27일 이 나라 중앙통계국이 조사자료를 인용하여 이에 대해 밝혔다.

【조선중앙통신】

압력소동에 강경대응하여 제재와

이란의 허황한 《인권침해》, 《핵위협》설을 구실로 한 서방의 대이란제재도수가 더욱 높아지고있다. 최근년간에 유엔을 리용하여 여러차례에 걸치는 이란제재법을 발동한 서방세력들이 얼마전에는 이란려객기에 대한 급유를 중단하는 조치까지 취하였다.

이란과 서방사이의 려객기급유문제를 둘러싼 마찰은 지난해부터 시작되였다. 미국은 지난해 7월에 효력이 발생한 이란에 대한 단독제재법을 근거로 원유가공품을 이란에 공급하는 외국회사들에 미국시장진출을 제한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이것은 저들이 강행하는 대이란제재책동에 서방세력들이 발을 맞추라는 일종의 경고였다. 그러자 영국의 석유회사들은 이란국영항공회사와의 급유계약을 취소하였다.

이란은 이에 대한 보복조치로 영국려객기들에 대한 급유를 중단하였다.

지난 3월부터는 프랑스와 오스트리아회사들까지 이란려객기에 대한 급유를 중단하는 조치를 취함으로써 이란과 서방사이의 보복전이 갈수록 격렬해지고있다.

현재 유럽지역을 비행하는 이란려객기들은 체스꼬와 마쟈르의 수도에 있는 비행장들에 착륙하여 로씨야석유회사로부터 연료를 공급받는 상태이다.

미국을 비롯한 서방의 일방적인 제재책동은 이란의 역공세에 부딪치고있다.

지난 4월 13일 이란부대통령은 자기 나라가 최근시기 유럽나라들이 이란려객기들에 대한 급유를 중단한것과 관련하여 그에 대한 대응조치로서 이란에 착륙하는 유럽나라 려객기들에 대한 연료공급을 중지하기로 하였다고 언명하였다.

서방의 전횡과 압력, 간섭책동에 강경자세로 맞서려는것이 이란의 립장이다.

오늘 이란은 서방의 부당한 제재와 압력책동에 국방력강화조치로 대응해나서고있다.

지난 4월 18일 이란의 테헤란에서는 군대절에 즈음하여 열병식이 진행되였다. 이 나라 대통령 마흐무드 아흐마디네자드가 무장력의 고위지휘관들과 함께 열병식에 참가하였다. 열병식에서는 각 군종, 병종 구분대종대들이 행진해나갔다. 열병식에는 각종 미싸일과 반항공체계, 땅크, 방사포 등이 등장하였다. 같은 날 국경연선지역들과 주요도시들에서도 주둔지역 군부대들의 열병식이 진행되였다. 아흐마디네자드 대통령은 열병식에서 한 연설에서 이란군대가 지역의 안전과 안정을 보장하는 강력한 억제력으로 되고있다고 하면서 그들이 적대세력들의 책동에 대처하여 최대의 경계태세에 있을것을 호소하였다.

열병식에서 특별히 주목을 끈것은 이란이 자체로 개발한 반항공미싸일, 지상대지상미싸일, 해상대지상미싸일, 해상대해상미싸일들 등 무장장비들이 공개된것이다.

최근년간 이란은 미국과 서방의 제재와 압력책동에도 불구하고 국방분야에서 커다란 성과를 이룩하고있다. 주요군사장비와 체계들의 국산화가 실현되고 새로운 군사기지들이 건설되고있으며 군사지휘체계와 부대들을 현 국제정세의 요구에 맞게 개혁하고 재편성하는 사업이 본격화되고있다.

얼마전에도 이란은 새로운 반항공미싸일체계의 시험발사를 성과적으로 진행하였다.

이란국방무력병참상은 머지않아 국내산 순항미싸일의 계렬생산도 시작할것이라고 언명하였다.

서방세력들은 그 어떤 제재와 압력책동으로써도 민족의 자주권과 존엄을 고수하고 나라의 번영발전을 이룩하려는 이란인민의 의지를 꺾지 못할것이다.

본사기자 전영희

착취와 억압을 반대하여 힘차게 투쟁

오늘은 5.1절이다.

5.1절은 온갖 지배와 예속을 반대하고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전세계 근로자들의 전투적위력과 련대성, 단결을 시위하는 국제적명절이다.

지금으로부터 125년전인 1886년 5월 1일 미국의 시카고에서는 수많은 로동자들이 자본의 가혹한 착취와 억압을 반대하고 8시간로동제의 실시를 요구하여 총파업과 시위를 단행하였다.

시카고로동계급의 정의로운 투쟁소식은 삽시에 미국의 여러곳으로 전해져 전국적으로 수십만명의 로동자들이 파업에 궐기하였다. 자본의 착취와 억압을 반대하며 생존의 권리와 민주주의적자유를 위하여 일떠선 미국의 광범한 피압박근로대중의 투쟁은 세계를 진감시켰다.

1889년 7월 프랑스의 빠리에서 열린 제2국제당창립대회에서는 로동계급의 생존권과 자주권을 찾기 위하여 용감하게 싸운 미국 시카고로동자들의 의로운 투쟁을 기념하여 매해 5월 1일을 전세계로동계급의 국제적명절로 할것을 결정하였다.

그때로부터 많은 세월이 흘렀다. 하지만 생존의 권리와 민주주의적자유,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마음껏 누리려는 근로대중의 념원은 아직까지 세계적범위에서 실현되지 못하고있다.

근로대중이 생존권과 로동의 권리를 누리자면 무엇보다도 그들에게 안정된 일자리가 보장되여야 한다. 그러나 생산수단이 극소수 착취계급의 수중에 장악되여있는 자본주의사회에서 근로대중의 생존권과 로동의 권리는 무참히 짓밟히고있으며 대중적실업이 하나의 류행병으로 되고있다.

지난 4월초 미로동성이 발표한 조사자료에 의하면 미국에서 3월에 실업자수는 1 350만명에 달하였다.

일본의 실업자수는 지난 1월현재 309만명에 이르렀다. 이것은 2009년 같은 시기에 비해 32만명 더 늘어난것으로 된다.

에스빠냐에서도 심각한 경제위기가 지속되면서 일자리축감사태가 계속 벌어지고있다.

지난 4월 4일 이 나라 정부는 조사자료를 인용하여 3월에 전국적으로 새로 3만 4 400여명이 일자리를 잃었다고 밝혔다. 이로써 에스빠냐의 실업자수는 433만 3 600여명에 달하였다.

최근 영국중앙통계국이 밝힌데 의하면 이 나라에서 올해 2월까지의 지난 3개월동안에 실업자수가 248만명에 달하였다고 한다.

오늘 자본주의세계를 휩쓸고있는 심각한 대중적실업사태는 수억만 근로대중의 생활처지를 더욱 악화시키고있다.

지난해초 미국의 극빈자수는 600만명에 달하였다. 이것은 3년전에 비해 50%나 증대된것이다.

얼마전 미국의 아칸소주당국은 통계자료를 발표하여 주에서 주민의 20%이상이 빈궁선이하에서 고통스럽게 살아가고있다고 밝혔다.

자본주의나라들에서 계속되는 임금삭감과 물가상승은 근로자들의 생활처지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있다.

에스빠냐에서는 지난해 4.4분기에 근로자들의 평균임금이 그전 분기에 비해 1.7% 감소되였다.

일본에서는 물가가 계속 뛰여올라 주민들의 커다란 불만을 자아내고있다.

지난 2월 일본중앙은행이 밝힌데 의하면 올해 1월에 전국적으로 도매가격이 지난해 같은 시기에 비해 1.6% 또 인상되였다고 한다.

이딸리아에서는 올해 2월에 물가가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2.4% 인상되였다. 특히 식료품가격이 크게 뛰여올랐다.

자본주의나라들에서의 실업위기와 근로대중의 생활처지의 악화는 극단한 개인주의와 약육강식의 생존법칙이 지배하고 반인민적인 제도가 존재하는 자본주의사회의 필연적산물이다. 기업이 입는 경영손실을 한푼이라도 줄이기 위해 수많은 근로자들을 하루아침에 일터에서 내쫓는 사회가 다름아닌 자본주의사회이다.

얼마전 미국의 항공운수업체인 유나이티드 콘티넨털 애어라인즈회사는 경영형편악화를 구실로 일자리축감계획을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올해 6월말까지 이 기업체에서 약 500명의 종업원들이 해고당하게 된다.

이보다 앞서 영국의 BBC방송회사는 리윤손실보상의 명목밑에 일자리축감계획을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650명의 근로자들이 해고될것이라고 한다.

해고선풍은 일본, 카나다를 비롯한 다른 자본주의나라들에서도 일고있다. 이러한 사실들은 근로대중의 초보적인 생존권과 로동의 권리를 무참히 짓밟고있는 자본주의사회의 반동성과 반인민성을 그대로 보여준다.

착취와 압박이 있는 곳에서는 반드시 반항이 있고 투쟁이 일어나기마련이다.

오늘 자본주의나라들에서는 자본의 착취와 억압을 반대하고 생존권과 로동의 권리, 민주주의적자유와 참된 삶을 요구하는 근로대중의 투쟁이 힘있게 벌어지고있다.

지난 4월 13일 미국의 캘리포니아주에서는 교육부문에 대한 예산을 삭감하려는 주당국의 그릇된 계획을 반대하는 시위가, 4월 9일 시카고에서는 일부 주당국들이 공공부문 근로자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조치를 취하려는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는 대중적인 집회가 벌어졌다.

지난 3월 26일 영국의 런던에서는 정부의 반인민적정책을 반대하는 근로자들의 대규모항의시위가 있었다.

시위참가자들은 《근로자들에게 일자리를》, 《정부의 예산삭감조치를 반대한다》 등의 글들이 씌여진 구호판들을 들고 시내거리를 따라 행진하면서 당국이 근로자들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을 실시하지 않고있는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였다.

이보다 앞서 그리스의 아테네에서도 수만명의 근로자들이 정부의 긴축조치에 항의하여 총파업을 벌렸다. 파업참가자들은 세계적인 빈궁과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서방나라 정부들의 부당한 정책에 항의하고 모든 근로자들에게 안정된 일자리와 사회적혜택을 보장해줄것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생존권과 참된 삶을 위한 근로자들의 투쟁은 자본주의가 복귀된 나라들에서도 벌어지고있다. 지난 3월 흐르바쯔까의 자그레브에서는 약 1만명규모의 항의시위가 있었다. 시위참가자들은 《우리는 로동자들에게 임금을 주지 않고 20년동안 일하던 로동자들을 실업자로 만들며 청년들에게 아무런 희망도 주지 않는 국가를 바라지 않는다.》라고 웨치며 정부의 사임을 요구하였다.

3.8국제부녀절에 즈음하여 뽈스까의 여러 지역에서도 경제적불평등과 실업 등을 반대하며 로동의 권리와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근로녀성들의 가두시위가 진행되였다. 시위참가자들은 《녀성들이 없는 민주주의는 민주주의가 아니다》, 《우리에게 일자리를 달라》 등의 글발이 새겨진 프랑카드와 구호판들을 들고 거리를 행진하였다.

오늘 자본주의나라들에서 벌어지는 근로자들의 대중적투쟁은 반동적이며 반인민적인 자본주의제도에 대한 그들의 울분과 반감의 표시이며 자주성을 위한 정당한 항거이다.

자본의 아성을 쓸어버리고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자본주의나라 근로대중의 투쟁은 앞으로 더욱 강화될것이다.

본사기자 서남일

ㄱ-110823 (정기간행물번호 제13003호) (정기간행물발송특별 취급승인 제3호) 전 화: 교환 326-2312, 편집국 326-1328, 론설원실 326-5428, 당력사교양부 326-5528, 당생활부 331-4528, 사회주의교양부 321-3528, 공업부 326-0263, 농업부 326-5628, 과학문화부 321-4628, 조국통일부 321-4882, 국제부 326-4728, 사진보도부 326-0712, 특파기자부 321-4328. 편집위원회